

국도77호선 조기건설 논리개발을 위한 사·도 협력 세미나

주최 · 주관 : 충남연구원

일시 : 2015년 5월 20일(수) 15:00~18:00

장소 : 대전역 한국철도공사 회의실(ITX청춘)

진행순서

15:00~15:10

개회 및 참석자 소개

15:10~16:30

Topic 1 : 해안도로(77+7) 개념

김원철 박사 (충남연구원)

Topic 2 : 국도7호선 관광가도 조성 및 운영 시사점

이영주 박사 (강원발전연구원)

Topic 3 : 해안도로 물류관광 활성화 방안

이상국 박사 (부산발전연구원)

16:30~17:50 토론 및 질의응답

17:50~18:00 폐회 및 정리

해안도로 (77+7) 개념

2015. 5. 20

김원철 책임연구원

충남연구원 지역도시연구부

목차

국도77호선 도로/관광지/산업단지 현황

국도77호선 관련 계획

해안도로 (77+7) 개념

국도77호선 도로/관광지/산업단지 현황

국도77호선 도로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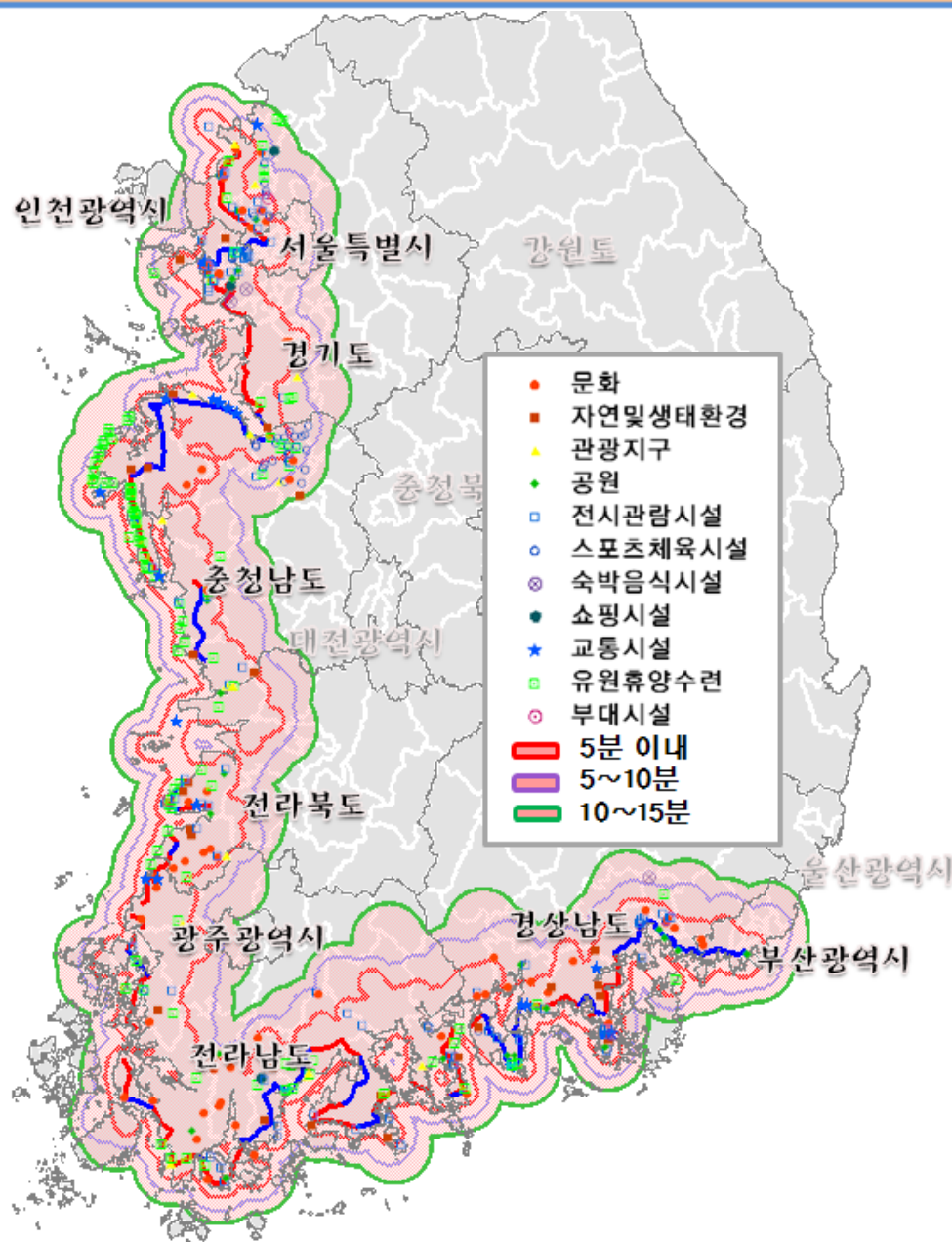
- 서남해안권 8개 시도, 45개 시군 통과 도로
- 연장 1,224,454m (중용구간 포함)
- 미연결구간(83.5km)

번호	구간	연장(km)
1	안산시 단원구~화성시 신의동	2.5
2	화성시 우정면	2.1
3	서산시 대산읍~태안군 이원면	2.8
4	태안군 고남면~보령시 남곡동	7.9
5	부안군 진서면	11.1
6	영광군 홍농읍~영광군 백수읍	4.7
7	영광군 염산면	4.0
8	신안군 압해읍~해남군 매월리	6.3
9	해남군 화산면	2.4
10	완도군 신리면	2.0
11	고흥군 영남면	13.4
12	여수시 화정면	19.7
13	여수시 둔덕동~남해군 서면	2.9
14	고성군 삼산면~통영시 도산면	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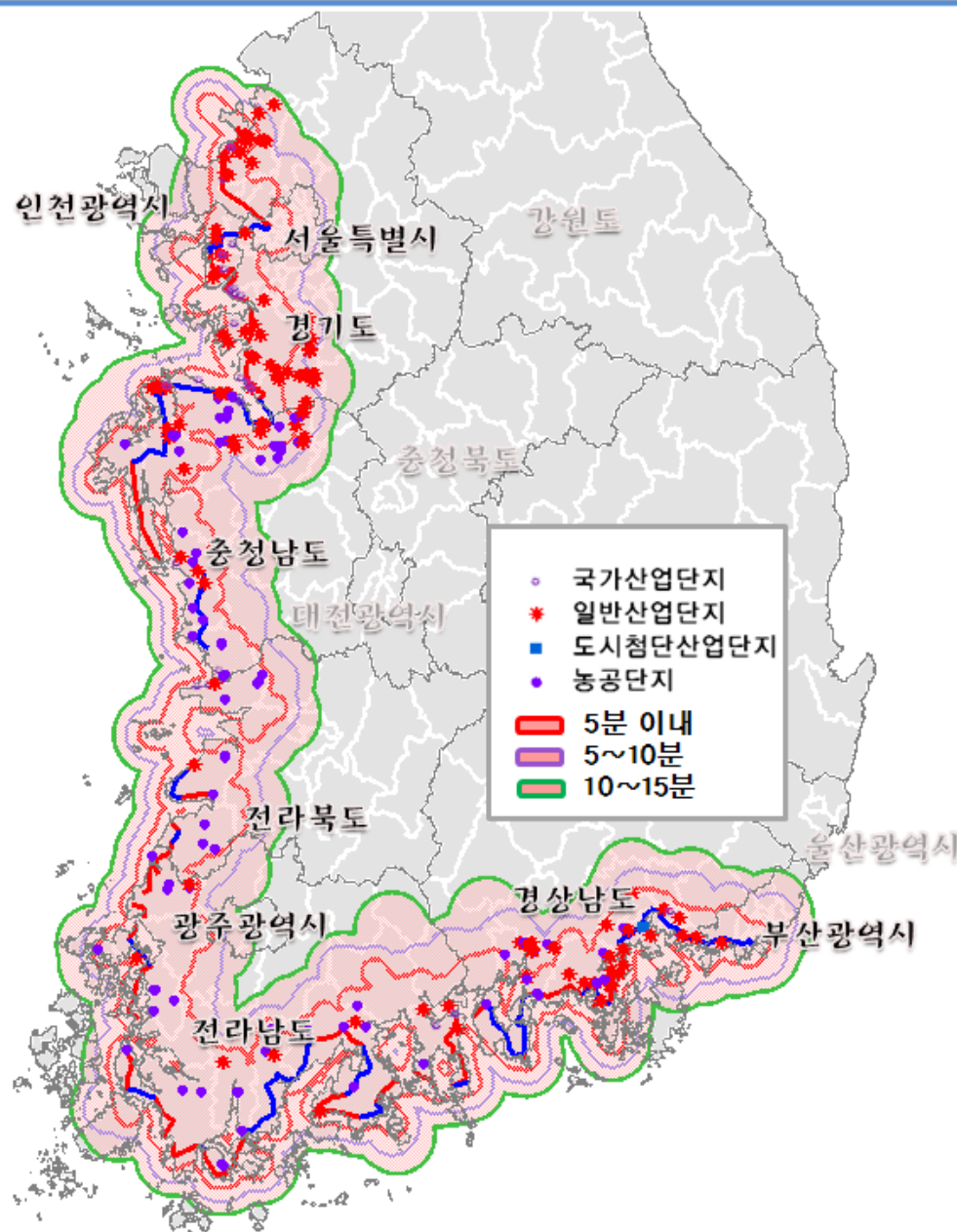
국도77호선 주변 관광지 현황

- 약 395개
 - 유원/휴양/수련 100개
 - 전시관람 90개
 - 문화 63개
- 161개 (약40%) 5분내 접근



국도77호선 주변 산업단지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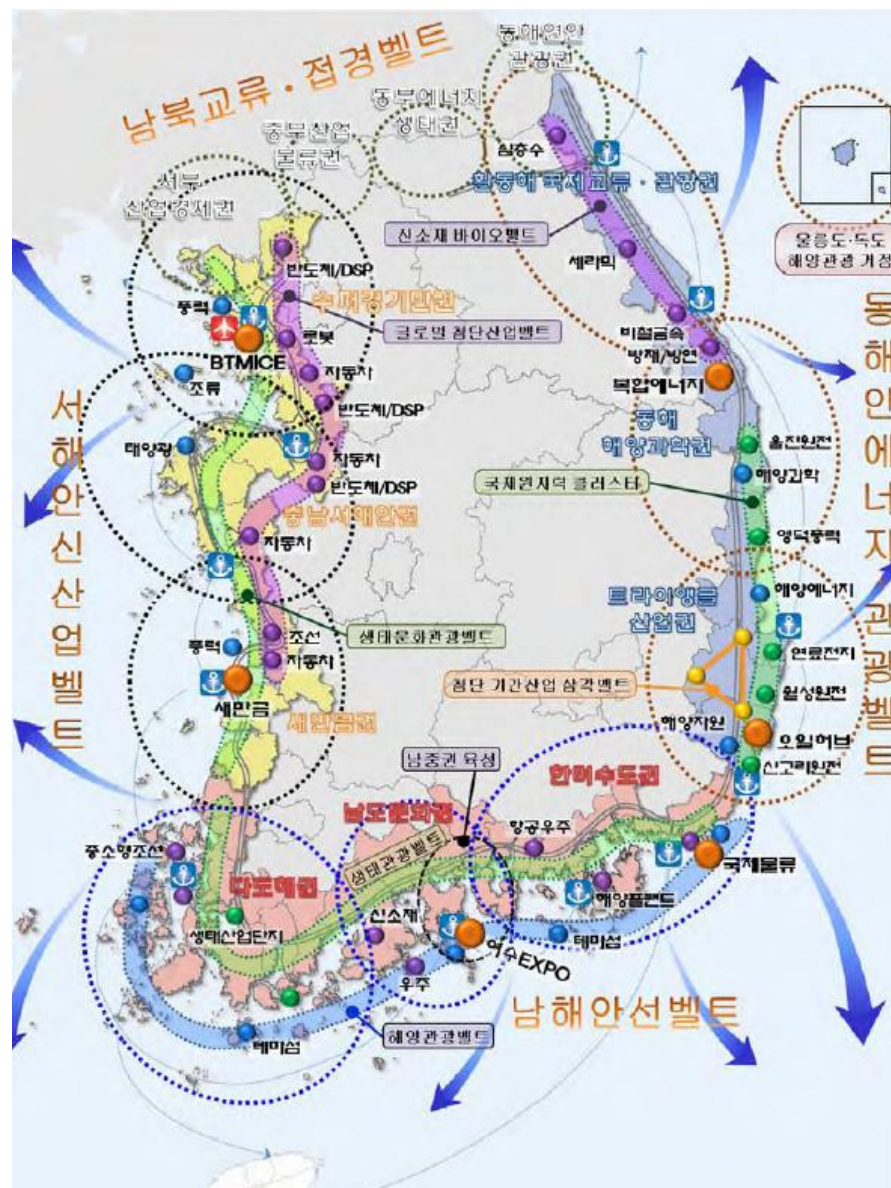
- 약 231개
 - 국가산단 26개
 - 일반산단 120개
 - 도시첨단산단 3개
 - 농공단지 82개
- 90개 (약39%) 5분내 접근
- 충남 65개 (점유율 1순위)



국도77호선 관련 계획

국도77호선 관련계획

- 제4차 국토종합계획(2011~2020)
 - 서해안초광역개발권(신산업벨트)
 - 국제비즈니스 거점
 - 초일류첨단산업벨트 구축
 - 글로벌 해양생태 조성
 - 글로벌 문화관광벨트 조성
 - 남해안 초광역개발권(선벨트)
 - 세계적 해양관광 조성
 - 세계적 휴양지대 조성
 - 초국경 네트워크 구축
 - 동서통합·지역발전 거점 육성



국도77호선 관련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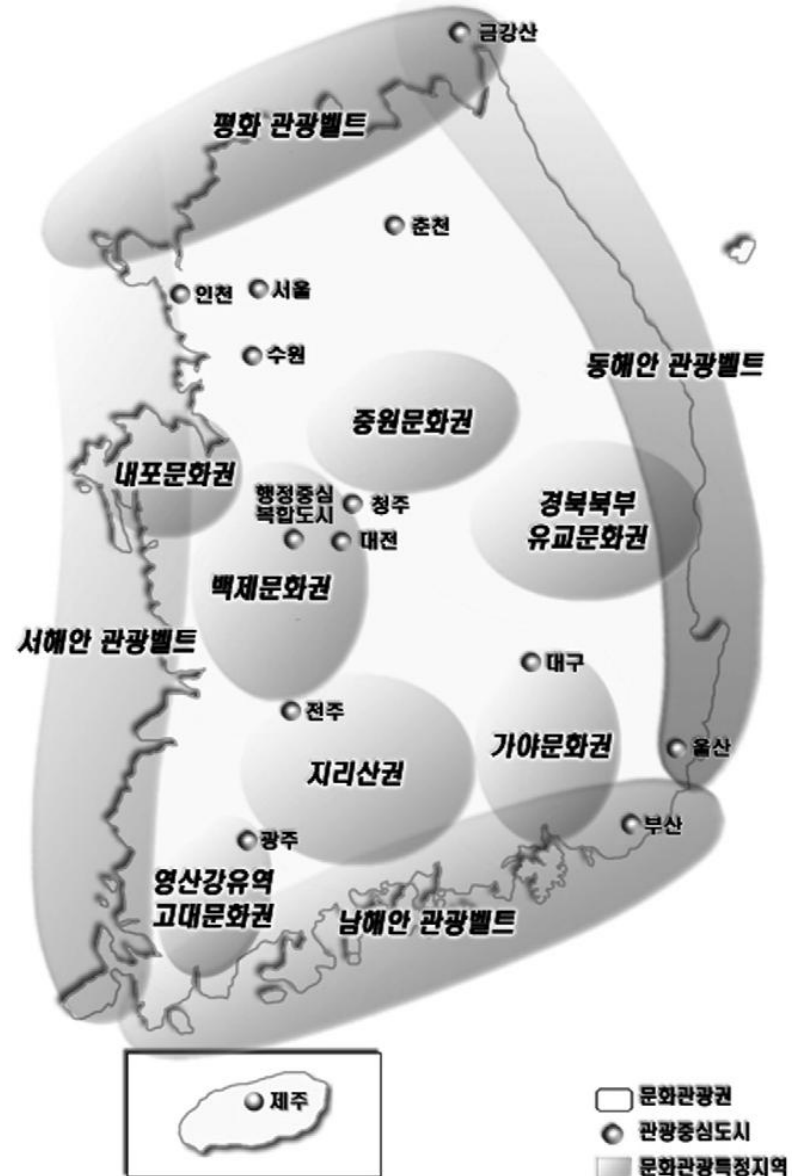
● 제4차 국토종합계획(2011~2020)

■ 광역관광벨트

- 서해안 관광벨트(경기만~목포)
 - 서해안관광인프라 확충
 - 국제적 생태해양관광지 조성
- 남해안 관광벨트(목포~부산)
 - 다도해와 남해 관광자원 연계

■ 광역관광권

- 내포문화권(충남 서북부)
- 백제문화권(부여·공주·익산)
- 영산강유역고대문화권(영산강주변)
- 가야문화권(영남내륙·남부)



국도77호선 관련계획

- 제3차 관광개발기본계획(2012~2021) '글로벌 녹색한국을 선도하는 품격있는 선진관광'
 - 수도권관광권 (미래를 선도하는 동북아 관광 허브)
 - 도시관광, 한류관광, 의료관광
 - 충청관광권 (과학기술과 관광이 결합된 융합관광의 거점)
 - 미래형 과학관광 거점, 한국형 의료관광
 - 내포-백제-중원 문화권을 연결하는 역사문화 관광루트 조성
 - 호남관광권 (아시아를 대표하는 문화관광 중추지역)
 - 전통과 현대가 조화된 문화관광축 조성, 새만금/서남해 연계, 생태체험관광
 - 대구/경북관광권 (3대 문화 역사관광의 거점)
 - 3대 문화권 중심 역사문화 육성, 백두대간 및 동해안 연계한 녹색관광
 - 부/울/경관광권 (해양레저/크루즈관광 중추지역)
 - 동북아 크루즈 허브, 해양/휴양관광 육성, 산·강·바다 연계 생태관광

해안도로 (77+7) 개념

해안도로(77+7) 개념

● AH(아시안하이웨이) 계획

- 동북아 경제권 형성을 지원하는 종합도로망
- 한반도 통과노선 : AH1 (경부고속도로), AH6 (국도7호선)



해안도로(77+7) 개념

- **국도77호선(1,224.4km)+국도7호선(474.2km, 강원고성~부산중구)**

- **국내 최장 해안도로**

- 약 1,698.6km (U라인)

- **아시아 초국경 해안도로**

- 중국↔한국↔러시아 연계

- **동서통합·지역발전 중심국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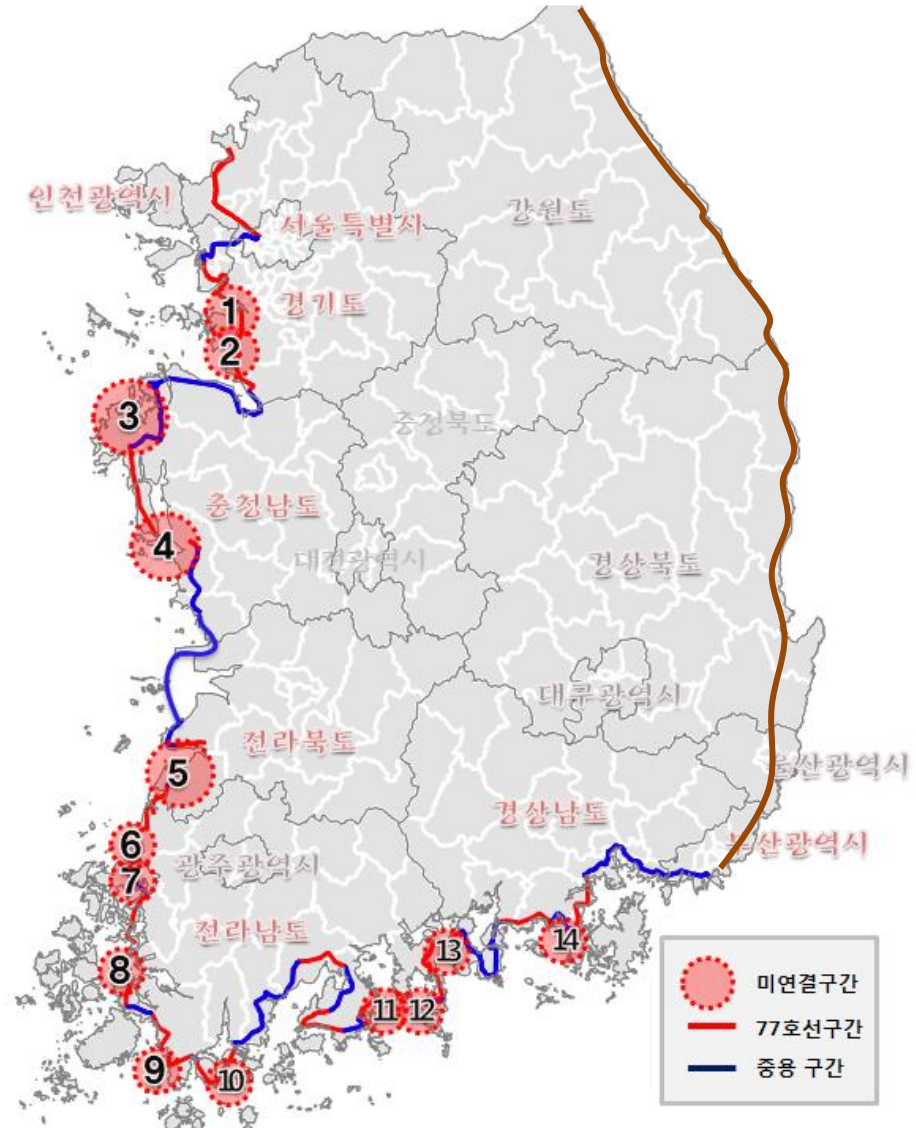
- 국내 11개 시도 광역 연계

- **개발 전략**

- **관광가도(상품연계)**

- **관광자원(해양교량)**

- **노선조정**



감사합니다.



강원도 국도7호선 관광가도 조성 및 운영 시사점



이영주(강원발전연구원 연구위원)

1 국토 7호선 관광가도 사업의 개요

가.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배경

- 도로의 '광역적인 관광브랜드화'가 최근 세계적인 추세: 독일 낭만가도
- 독일 낭만가도의 실체 : 가도상 도시들을 관광산업의 핵심으로 형성

목적

- 강원도 동해안 도로 : 관광브랜드화 + 가도상 도시들의 관광 활성화 모색
- 녹색관광의 가치 증진 : 환경보전 + 기존 관광자원의 고부가가치화
- 6개 시·군이 참여하는 견고한 관광협력체 역할 제시

나. 연구의 범위

공간적 범위

- 동해안 6개 시군 7번 국도 및 해안도로 주변

시간적 범위

- 기준년도 2009년
- 계획기간 2009년~2011년(3년간)

내용적 범위

- 국내외 관광가도 사례 및 동해안 여건 분석
- 강원도 동해안 낭만가도 조성 방안 도출
- 사업추진 및 파급효과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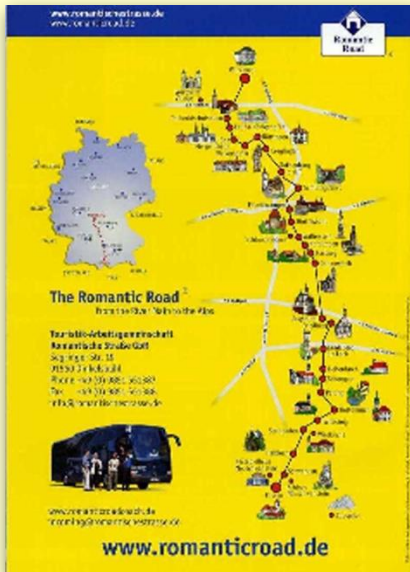
다. 해외 사례 분석의 시사점

독일 로맨틱가도

- 독일 내 150여 개 관광가도 중 가장 성공적인 350km의 관광가도
- 27개 기초지방자치단체가 각 도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협력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관광상품: 길 자체의 경관이 중요한 것은 아님
- 다양한 투어방식의 유료관광상품 출시(도심투어, 음식체험, 문화탐방 등)
- 로맨틱가도 관광협의회 운영으로 실질적인 공동 마케팅 수행

호주 블루오션로드

- 140km의 해안도로로, 아름다운 풍경을 테마로 하고 있으나 도로를 따라 관광중심도시들의 방문을 유도하는 시스템
- 도심지에서의 관광소비활동에 높은 비중을 두고 있음 (이벤트, 갤러리, 음식 및 쇼핑 등)
- 공동 홈페이지 관리, 브로셔 제작, 인포메이션 센터 운영



도시관광 활성화

관광마케팅+브랜드화

민간 중심의 운영

광역적 관광발전

경관형성

하드웨어 개발

공공중심

개별 지자체 발전



라. 국내 관광가도 개발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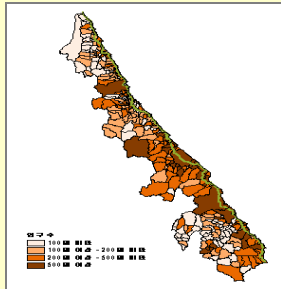
국내 해안도로의 대다수 :

- 경관 관람용 도로로 개발 중
- 해외사례에서와 같이 다양한 중심지들의 관광 기능과 서비스 기능을 확충시켜 경제적 핵심으로 성장시키려는 노력은 미흡
 - 시군 경계를 뛰어넘는 광역 개발도 부족

강원도 동해안 관광가도

6개 시군의 해안 중심지들을 성장시키고, 광역관광의 새로운 체계를 준비해나가는 진정한 의미의 관광가도임

마. 동해안도로의 관광가도 조성 여건 분석



인구분포도

인구
밀집도

대부분 해안가에 인구 집중 분포
: 강릉시, 동해시, 속초시, 삼척시, 주문진읍, 거진읍, 양양읍 등

관광
산업
특화도

음식숙박업/도소매업체 의 지역적 편차가 매우 심각
: 주요 도시와 읍 중심으로 분포

관광
교통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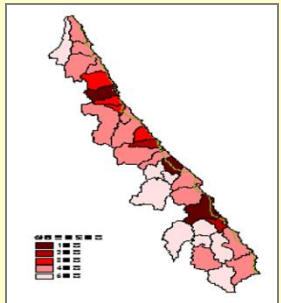
7번 국도 연평균 교통량 많은 지점
: 속초-양양구간, 양양-주문진 구간, 주문진-강릉 구간, 삼척 시내

관광
자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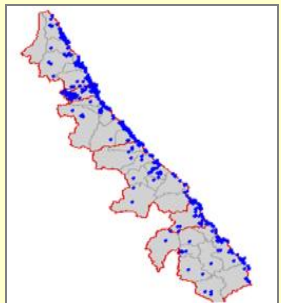
대부분 해안가에 각종 관광자원이 집중분포 6개 시군 관광자원 분포
: 해수욕장 이외의 문화자원, 해양자원, 산악자원 등 발굴 필요

관광
연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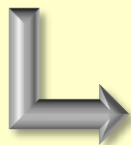
6개 시군간 관광연계망은 17개 시외버스터미널간 연계가 주류
: 철도, 해상 운송 부족, 셔틀관광은 운송업계 반발로 백지화



음식숙박업체 분포



관광자원 분포



7번 국도 상에 관광중심지들이 뚜렷하게 형성
: 낭만가도 브랜딩을 통해 명품화된 도시로 전환 필요

바. 낭만가도의 개념

- 경관과 관광자원이 구비된 동해안 도로를 바탕으로 하는 **광역적인 관광상품 브랜드**
- 동해안 개별 중심도시들이 **지역 관광산업의 성장**을 함께 고민하는 **도시관광 네트워크**
- 실질적인 **공동마케팅**을 수행하는 광역적인 **관광협의체**에 의해 운영

사. 낭만가도의 성격

	독일 로맨틱가도	호주 블루오션로드	동해안 낭만가도
입지	내륙	해안	해안
총길이	350km	140km	210km
관광테마	중세 문화유산 중심	자연경관 중심 역사, 문화, 레저 등 보강	자연경관 중심 역사, 문화, 레저 등 보강
중심지	27개 중소도시	6개 도시 + 17개 관광목적지	22개 관광중심지
이동수단	자가용, 광역관광버스 자전거, 도보	자가용	자가용 (추후 광역관광버스, 자전거 등)
관광객	내·외국인	내·외국인	내국인(추후 외국인 포함)
관광소비	쇼핑과 숙박/음식 위주 유료의 문화관광투어상품	숙박/음식과 부띠끄 쇼핑 위주 유료의 레포츠투어상품	숙박/음식과 특산물 쇼핑 위주 유료의 각종 투어상품 개발

2 강원도 낭만가도 조성

가. 관광중심지 선정 · 조성(22개소)



일본 유후인의 관광쇼핑거리



스페인 발렌시아의 축제 광장



바르셀로나의 도심 노천카페

3등급의 관광중심지 선정

: 고차 중심지일수록 관광산업의 중요성이 광역화

3차

강릉, 속초

동해안 관광산업의 중심지 역할
광역적/통합적 관광정보서비스

2차

전진, 하광정, 주문진,
동해, 삼척

1차 중심지 역할 + 숙박서비스
+ 중심지 위주의 관광정보안내/컨설팅

1차

대진, 거진, 간성, 오호, 천진,
양양, 인구, 남해, 정동진,
금진, 교가, 임원, 호산

기본적인 음식과 쇼핑서비스 위주
+ 중심지 위주의 관광정보안내

등외

단오문화권, 속초설악권

낭만가도의 시너지 효과 기대

나. 중심지별 관광컨셉(고성)



고성	대진	-DMZ 관광, 명품 바다일출 -특색숙박상품, 북한음식체험 상품, 해안도로 바이크
	거진	-화진포 중심의 여가와 휴식, 명태잡이 화진포 -숙박체험 프로그램, 명태 Tourist 메뉴 개발
	간성	-고성의 농산촌 테마 체험 -고성8미 상품화·마케팅, 건봉사 문화탐방 상품 개발
	오호	-송지호 생태관광, 해양 심층수 체험 -숙박/학습 문화체험 패키지화, 숙박/해양심층수 연계
	천진	-리조트 휴양, 관동팔경, 청간정/청학정 스토리텔링 -일출관람 루트버스 운행, 전문쇼핑상점가 형성

다. 중심지별 관광컨셉(속초)



속초	시 내	- 다양한 Seafood의 향연 - 도심권 해산물음식페스티벌 개최, 아바이마을 탐방 상품 개발
	설악권	- 설악산 비경과 리조트 휴양 - 웰니스 등산체험 프로그램 개발, 설악산 기념품 확충

라. 중심지별 관광컨셉(양양)



양 양	전진	-낙산사의 경관과 전설, 휴양 -관광타운 중심의 쇼핑몰 정비, 자전거여행 루트 개발
	양양	-오색지구 휴양과 계절별 다채로운 축제 -휴양림별 테마체험 발굴, 송이/연어/뚜거리탕 상품화
	하광정	-하조대 경관, 기사문해안로 드라이브, 탁장사전설 -예술벤치, 갈대밭 미로, 모래찜질, 일출해장국
	인구	-포매호 백조와 왜가리, 배낚시/민물낚시 동시체험 -인구항-포매호 자전거 투어코스, 셀프형 요리센터
	남애	-갯마을 어촌체험, 노천카페 ZONE, 어촌밥상 -남애항 아뜰리에, 전국제일의 출사지, 포토존 등

마. 중심지별 관광컨셉(강릉)



강 릉	주문진	-쇼핑품목의 확장(수산물가공품, 즉석요리상품 등) -계절별 해산물 축제, 할인쇼핑 이벤트
	시내	-관광가도 최대중심지, 관동팔경, 시티투어 -숙박·음식·쇼핑·서비스 총체적 극대화
	단오문화권	-강릉단오제, 단오제관련 디자인상품·영상물제작 -미니 북센터 조성, 마을별 향토음식 상품화 -대관령스토리텔러 육성, 대관령 옛길
	정동진	-커플여행지, 열차이용객 유료 쉼터 조성 -커플객을 위한 카페지도 작성, Tourist 메뉴 개발
	금진	-금진온천, 헌화로드라이브, 보양식 Tourist -헌화로 보도블럭 조성, 철쭉 꽃밭 조성

바. 중심지별 관광컨셉(동해)



동해 시내

동해 시내

- 망상 숙박체험 이벤트, 북평5일장 문화탐방
- 추암/무릉/해안도로를 담은 사진엽서 발매

사. 중심지별 관광컨셉(삼척)



삼 척	시내	-동굴체험, 새천년해안도로, 관동팔경 -새천년해안도로 Tourist 메뉴, 쇼핑센터
	교가	-해양스포츠 학습 강좌, 해안 Green Garden -해안가 꽃/나무길 조성, MTB 코스 정보화
	임원	-성민속문화체험, 남근송배민속 스토리텔링 -낙시프로그램 상품화, 해산물 정력음식 개발
	호산	-단순 경관관람, 호산5일장 관광자원화 -자전거투어, 관광객 도시락, 사진엽서

아. 광역개발을 위한 대표 브랜드 관광상품 개발

드라이브형 관광상품

- B&B(Bed & Breakfast)형 드라이브 상품
 - 숙박+식사+주유+특산물 구매를 연결하는 상품권 발매
- 특이한 경관관람 투어버스 상품
 - 투명덮개를 가진 버스투어, 별밤에 함께하는 새천년해안도로 투어 등

문화 관광상품

- 관동팔경의 자취를 따라서 : 당일투어 상품
- 낭만가도 따라 템플스테이 상품
 - Temple of East 방문의 해 프로그램 운영
- 동해안 씨푸드 박람회 개최 등

계절별 대표상품

- 봄 : Flower Road 상품, 봄나들이 문화상품, 민속마을 숙박체험
- 여름 : 피서용 지역 보양음식, 동굴숙박체험, 어촌체험 등
- 가을 : '령'과 함께하는 가을 낭만가도 상품, 추석특산물 쇼핑그랜드 이벤트
- 겨울 : 낭만온천 상품, 썰매체험, 겨울바다 등

자. 관광서비스 품질제고

모범관광사업체를 위한 낭만가도 인증마크 설치 : 숙박, 음식, 쇼핑 등

- 관광협의체를 중심으로 양질의 낭만가도 서비스가 이뤄질 수 있도록 엄격한 자체 인증시스템 마련
- 인증사업체 인센티브 제공 : 낭만가도 지도제작 홍보, 낭만가도협의회 당연직 회원자격 부여



독일 로만틱가도 숙박업소의 실내 연출

독일 로만틱가도의 인증업소 표시

뉴질랜드 인증마크-퀄마크

차. 낭만가도의 홍보 마케팅

공동브로셔 발행
관광가도VIP카드 발급

전용홈페이지 운영 및 모바일 연계
관광가도 상품판매 촉진 활동
관광안내센터[TIC] 설치

내비게이션용 DB와 연계
안내표시판 설치



독일 로만틱가도 공동브로셔



베트남 여행정보안내센터
싱카페



독일 로만틱가도 안내표시판

3 사업추진 및 파급효과

가. 추진사업

◎ 총 사업비 : 54억6천만원 [H/W, S/W] + 825억원[경관형성]

● H/W : 39억 3천 (2009년 9억 , 2010년 20억 7천, 2011년 9억 6천)

- 시군 중심지별 추진사업(31억원)
- 안내표시판(9천만원)
- 관광안내정보센터[TIC] 설치(4억4천만원)
- 기타(3억원)

● S/W : 15억 3천 (2009년 3억 1천, 2010년 6억, 2011년 6억 2천)

- 대표 테마상품 개발
- 인증제도 개발/운영(8천만원)
- 통합정보시스템 구축(2억원)
- 기타(6억8천만원)

● 경관형성 : 825억원(2008~2018년)

- 고성군 (150억원)
- 속초시 (151억원)
- 양양군 (109억원)
- 강릉시 (199억원)
- 동해시 (105억원)
- 삼척시 (111억원)

나. 관광 추정과 개략적 파급효과

- 관광수요 : 529만명(2011년) ⇒ 618만명(2016년)
- 경제적 파급효과 : 5,423억원(2011년) ⇒ 6,343억원(2016년)
 - 2007년 관광실태조사자료 참조 : 1인당 관광소비액 102,600원 기준

다. 사회문화적 파급효과

- 동해안 광역관광의 브랜드화 및 도시관광의 활성화
- 지역 관광산업의 구체화 · 고도화
- 여름한철 의존하는 동해안 관광의 심각한 계절성 문제 완화

라. 동해안 낭만가도의 의의

- 국내 최초의 선진형 관광가도 조성
- 6개 시군이 함께 만들어나가는 광역관광의 새로운 체계

4 6개 시군의 협력방향 제안

독일 관광가도의 성공요인

- 광역 관광마케팅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게마인데들의 공감과 협력
- 현대인들이 추구하는 감성 트렌드를 '길'과 연결시킬 수 있는 유연한 사고
- 관광객이 인지할 수 있는 정확한 관광루트 설정
 - 기점, 종점, 중간기착점들을 명확하게 연계 : 개별 도시들의 관광활성
- 국도나 지방도를 중심으로 차량, 자전거, 도보까지 광범위하게 고려
- 경관, 문화, 예술, 맛, 와인, 역사 등 각 도시가 차별화된 테마를 유지
- 테마가 명확하더라도 이를 계속 변용시켜야 경쟁력 확보
- 조직과 인력, 비용의 효율적인 구성이 필수
 - 로만틱가도 관광협의회 구성, 29개 게마인데의 회원 가입
 - 관광공사 직원, 행정관, 민간사업자 등 다양한 형태
 - 협의회에서 로만틱가도의 연도별 중요 전략과 과제 선정
 - 사무국을 설치하여 공동마케팅 기능 위주의 전략 실행 : 2008년 현재 11개국 언어로 약 50만 부의 관광브로셔 발행
 - 협의회 운영은 27개 회원들의 회비로 충당 : 직원(1-2명) 월급, 사무실 임대비, 출장비, 홍보물 제작비, 박람회 참가비 등으로 활용
 - 회비는 인구수와 숙박관광객수 기준으로 3등급 구분
 - 2000년부터 민간의 참여 기회 확대 : 음식업자, 와인제조업자, 숙박업자 등을 중요 회원으로 받아들이고 로만틱가도 공식 브랜드를 활용하도록 인정
 - 다양한 민간업자 참여로 브로셔의 콘텐츠가 양적, 질적으로 모두 개선

6개시군의 협력방향

- 개별도시의 특성화를 동해안 광역관광개발과 연계시키려는 협력의지 확인
- 새로운 개발보다는 기존 자원을 각인화, 세련화시키려는 마케팅 사업 공감
- 동해안 낭만가도의 관광테마를 차별화
 - Main : 해안을 따라 이어지는 아름다운 풍경
 - Sub : 4계절 특색있는 다양한 관광도시들, 동해안 Sea Food, 항구와 어촌을 통해 이어져온 영동지역의 역사문화적 정서, 6개 시군이 추구하는 동해안 개발 비전과 전략 등
- 동해안 낭만가도 협의회 조성 추진 및 향후 실행계획 확정
 - 개별 목적지의 관광개발사업을 지원하는 차원이 아님
 - 중심지별 차별화된 컨셉에 동의했으면 이에 관련된 사업 위주로 검토
 - 특히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와 휴먼웨어에 지원 총력
- 가장 어려움이 예상되는 부분은 숙박, 음식, 쇼핑 등 민간의 참여 부분
 - 민간은 협의회를 통해 자발성과 경쟁력 확보의 의지를 다져야 함
 - 합리적인 규약을 통해 모두가 수긍하는 인증제도 마련이 관건
- 단계를 밟아나가는 성장 도모
 - 처음부터 무리한 조직과 무리한 사업은 오히려 독으로 작용
 - 업무영역을 차차 넓혀가면서 필요한 인력과 네트워크 구축
 - 특히 마케팅 분야는 처음부터 전문적인 인력과 조직이 참여
 - 협의회를 지원해줄 수 있는 광역적인 관광마케팅 조직도 고려 가능

<독일 낭만가도>

www.romantischestrasse.de
www.romanticroad.de

The Romantic Road®
from the River Main to the Alps

**Touristik-Arbeitsgemeinschaft
Romantische Straße GbR**
Segringer Str. 19
91550 Dinkelsbühl
Phone +49 (0) 9851 551387
Fax +49 (0) 9851 551388
info@romantischestrasse.de

www.romanticroadcoach.de
incoming@romantischestrasse.de

www.romanticroad.de

© Touristik-Arbeitsgemeinschaft Romantische Straße GbR. "Romantic Road" All information without engagement and subject to change without notice.

PLANNING GUIDE

Romantic Road

The Romantic Road®
from the River Main
to the Alps

- Sightseeing ■
- Itinerary ■
- Insider tips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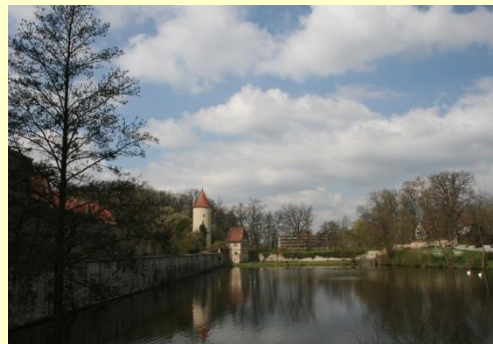
로텐부르크 : 장난감 도시



뷔르츠부르크 : 와인켈러 체험관광



튀센 : 노이슈반스타인성



딩켈스빌 : 고스란히 남은 중세유적



포이히트방엔 : 건축문화재로서의 호텔 겸 레스토랑



해안도로 물류·관광 활성화 방안

- 부산해안교량 관광자원화 마스터플랜 -

부산발전연구원 이상국 박사

2015.5.20

Contents

- I. 연구의 개요
- II. 대상지 주변 개발여건 분석
- III. 국내·외 사례분석
- IV. 시민아이디어 공모 및 설문조사 결과
- V. 교량별 관광자원화 구상
- VI. 유료도로 효율적 운영방안 검토
- VII. 교량별 사업 추진체계 검토 및 향후 추진과제
- ※ 국도 77호선을 위한 시사점

I. 연구의 개요

1. 연구 배경 및 목적

해양교량 관광자원화 마스터플랜

연구 배경

- 2016년말 광안대교~거가대교(L : 52km) 간 해안순환도로 완성 예정 (7개 교량 + 1터널)
- 해안순환도로의 각종 시설물들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 해안도로(교량)의 브랜드가치의 극대화 강구
- 해안순환도로의 유료시설물(4개 교량 + 1개 터널)의 이용증대를 위한 효율적 운영방안에 대한 검토 필요

연구 목적

- 전문가 및 시민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특색을 갖춘 관광시설 또는 콘텐츠 개발로 부산해안도로(교량)의 명품화를 추진함과 동시에 해안순환도로의 건설효과를 극대화

교량 중심의
해안 경관가치 극대화

유료도로
이용효율 향상

교량마케팅 관광자원화
전략 제시(브랜드화)

2. 연구 범위

공간적 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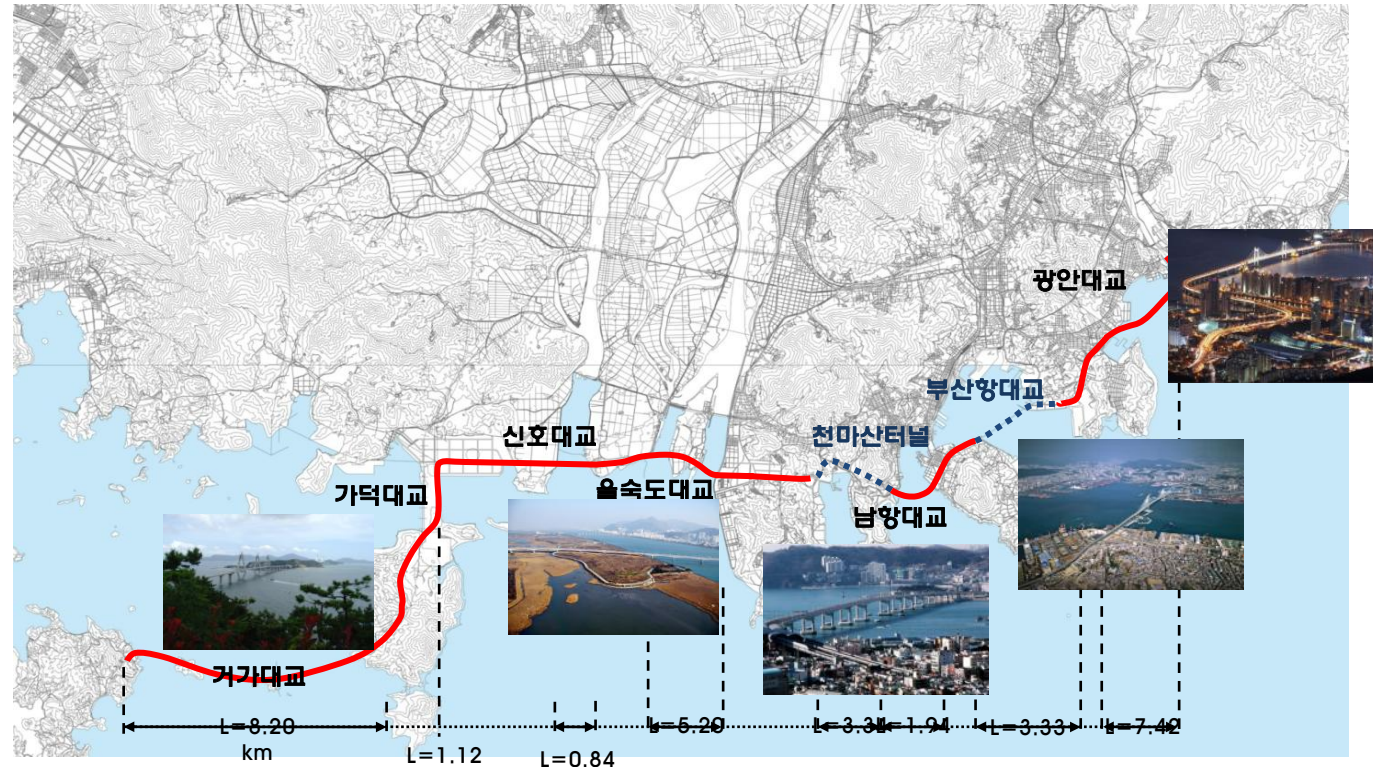
- 부산해안순환도로 52km구간
(해운대 벙스코 요금소 ~ 거제시 장목면)
- 간접영향권 : 부산시 전역 및 경남 거제시 장목면 일원

내용적 범위

- 해안순환도로 관광자원화 여건 분석
- 교량특성 반영 시설물 및 관광컨텐츠 발굴 / 사업모델 개발
- 교량 연계 접근교통체계 수립
- 유료도로 효율적 운영 방안 검토
- 해안교량 브랜드전략 수립
- 자원조달 및 단계별 추진방안 검토

시간적 범위

- 기준년도 : 2012년
- 목표년도 : 단기 2013년, 2015년, 중기 2017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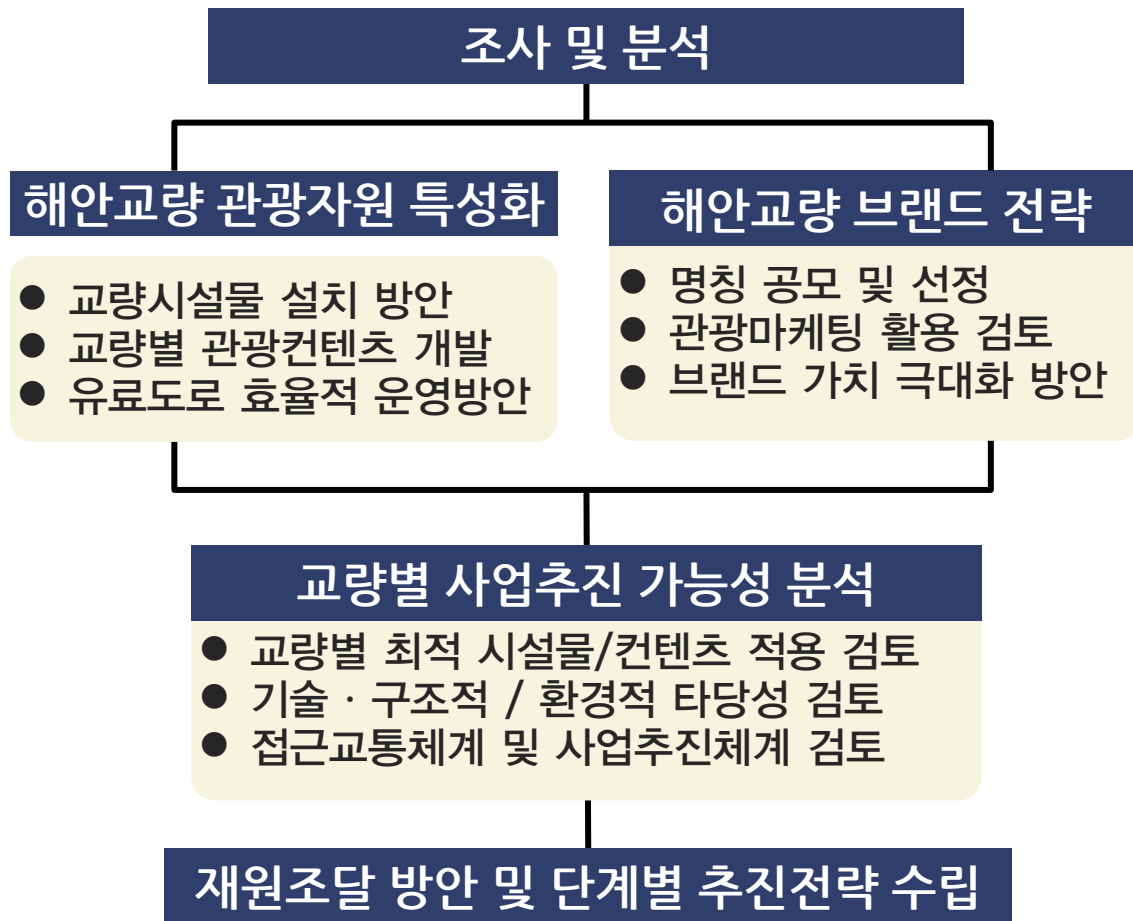


3. 수행연역 및 과정

연구 수행연역

- 2010.11 : 연구 아이디어 경연대회 (대상)
– 5 페이지 PPT : Pacific Bays Highway
- 2010.12 : 부산시 연구수행 요청으로
- 2011.02 : 현안분석 보고서 : 부산 해안순환 도로의 관광자원화 전략구상
- 2011. 4 : BDI-부산시-부산일보 공동 프로젝트
‘Bridges of Busan : 세계의 교량 탐방/취재 등
- 2012. 11 : ‘부산해안교량 마스터플랜 수립’
– 시민아이디어 공모, 전문가 및 사업자 등 다양한 방식 활용한 연구
- 2012. 6 : 부산시 추진계획 수립
- 2013~현재 : 사업부서별 추진 중

연구 수행과정



II. 대상지 주변 개발여건 분석

1. 입지여건



- 부산 : 동·남해안 관광벨트의 교차점상에 위치한 해양관광 거점
- 해안순환도로 : 남포동, 자갈치, 롯데타운 등 중심상권과 연계, 원도심과 북항재개발, 해운대 거점인 센텀시티가 연결
- 거제~해운대 벡스코까지 52km 해안순환도로상의 7개 교량을 중심으로 관광명소 접근 및 해안경관 조망 양호

2. 부산시 해안순환도로 (교량) 현황

해양교량 관광자원화 마스터플랜

해안순환도로

- 사업기간 : 1994~2016년
- 총공사비 : 7조원 이상

구분		도입시설
교량 (7개소)	공용	광안대교
		남항대교
		을숙도대교
		신호대교
		가덕대교
		거가대교
		부산항대교
터널 (1개소)	건설 중	천마터널



광안대교

- 사업위치 : 수영구 남천동 49호 광장 ~ 해운대구 센텀시티
- 사업규모 : L=7.42km, B=18~25m (2층 구조, 왕복 8차로)
- 사업기간 : 1994년 ~ 2002년
- 총사업비 : 7,899억원 (시비 5,097억원, 국비 2,802억원)
- 도로기능 : 자동차전용도로 (V=80km/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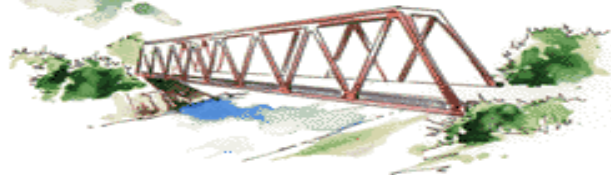


구 분	내 용
교량형태	현수교 900m, 트러스교 720m, 접속교 5,880m
통행료	1,000원
조명설비	특수조명기구 1,934등 (투광기 1,660등, LED 274등)
통행량 (2010년)	69,034(대/일)

현수교



트러스교



부산항대교

- 사업위치 : 영도구 청학동(시점) ~ 남구 감만동(종점)
- 사업규모 : L=3.33km, B=18.6~45.3m(4~10차로)
- 사업기간 : 2007년 ~ 2014년
- 총사업비 : 5,384억원 (민자 3,334억원, 재정 2,050억원)
- 도로기능 : 자동차전용도로
- 설계내용 : 강합성 사장교 1,114m, 스틸박스교 2,218m, 램프1,522m

구 분	내용
교량형태	사장교 1,114m / Steel Box교 2,217m
통행료	1,500원
통행량 (2016년)	49,838(대/일)



남항대교

- 사업위치 : 서구 암남동 ~ 영도구 영선동
- 사업규모 : L=1.94km, B=18.5~38.6m(왕복 4차로)
- 사업기간 : 1997년 ~ 2008년
- 총사업비 : 3,550억원
- 도로기능 : 자동차전용도로(v=80km/h, 제한 70km/h)



구 분	내 용
교량형태	강상형교 1,015m 강합성교 832m, 램프 94m
통행료	없음
조명설비	총 1,628등
통행량 (2016년)	62,431(대/일)



천마산터널

- 사업위치 : 서구 암남동 ~ 사하구 구평동
- 사업규모 : L=3.34km, B=20.5m(왕복4차로)
- 사업기간 : 2011년 ~ 2016년
- 총사업비 : 1,993억원 (민자 1,215억원, 재정 778억원)
- 도로기능 : 자동차전용도로(V=80km/h)
- 설계내용 : 터널 1,500m, 접속도로 1,840m

구 분	내용
교량형태	터널 1,500m
통행료	1,400원
통행량 (2017년 예측)	27,239(대/일)



을숙도대교

- 사업위치 : 강서구 명지동 75호광장 ~ 사하구 신평동 66호광장
- 사업규모 : L=5.2km, B=25.5m~35m(왕복6차로)
- 사업기간 : 2005년 ~ 2010년
- 총사업비 : 4,200억원
- 도로기능 : 자동차전용도로 (V=70km/h)
- 설계내용 : 평면도로 1,600m, 접속도로 2개소

구 분	내용
교량형태	연속교 5,205m
통행료	1,400원
통행량 (2015년)	44,894(대/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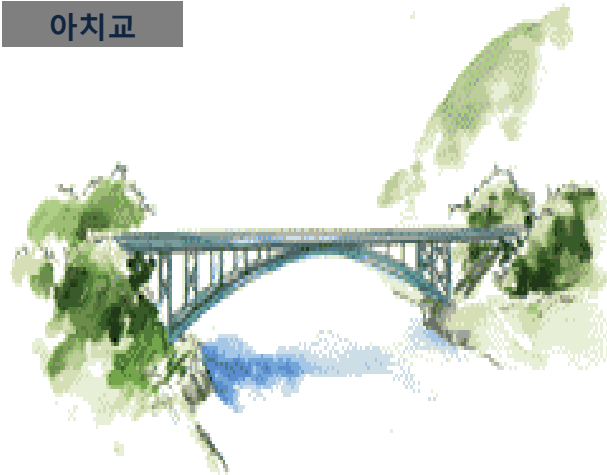


신호대교

- 사업위치 : 부산 강서구 신호동 ~ 명지동
- 사업규모 : L=0.84km, B=36m(왕복4차로)
- 사업기간 : 1995년 ~ 1997년
- 총사업비 : 410억
- 도로기능 : 자동차전용도로
- 설계내용 : 최대 경간장 120m, 강상형 합성교 12경간(60m씩)

구 분	내용
교량형태	아치교120m, 강상형 합성교 720m
통행료	없음
2010년 교통량	68,473(대/일)

아치교



가덕대교

- 사업위치 : 부산강서구 송정동 녹산산단 ~ 가덕도 천가동 놀차항
- 사업규모 : L=1.12km, B=21m~35m(복층)
- 사업기간 : 2003년 ~ 2010년
- 총사업비 : 1,352억
- 도로기능 : 자동차전용도로
- 설계내용 : 해상 본선구간 780m, 복층교량

구 분	내용
교량형태	연속교 1,120m
통행료	없음
통행량 (2010년)	50,000(대/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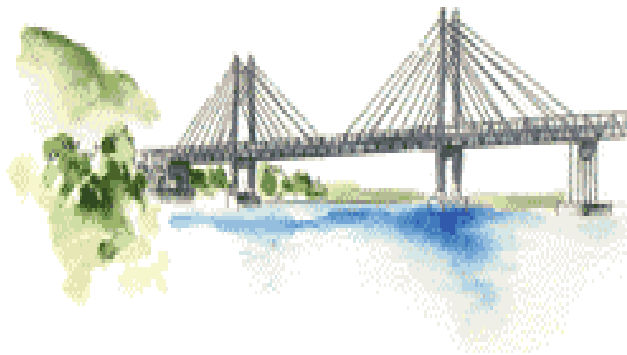


거가대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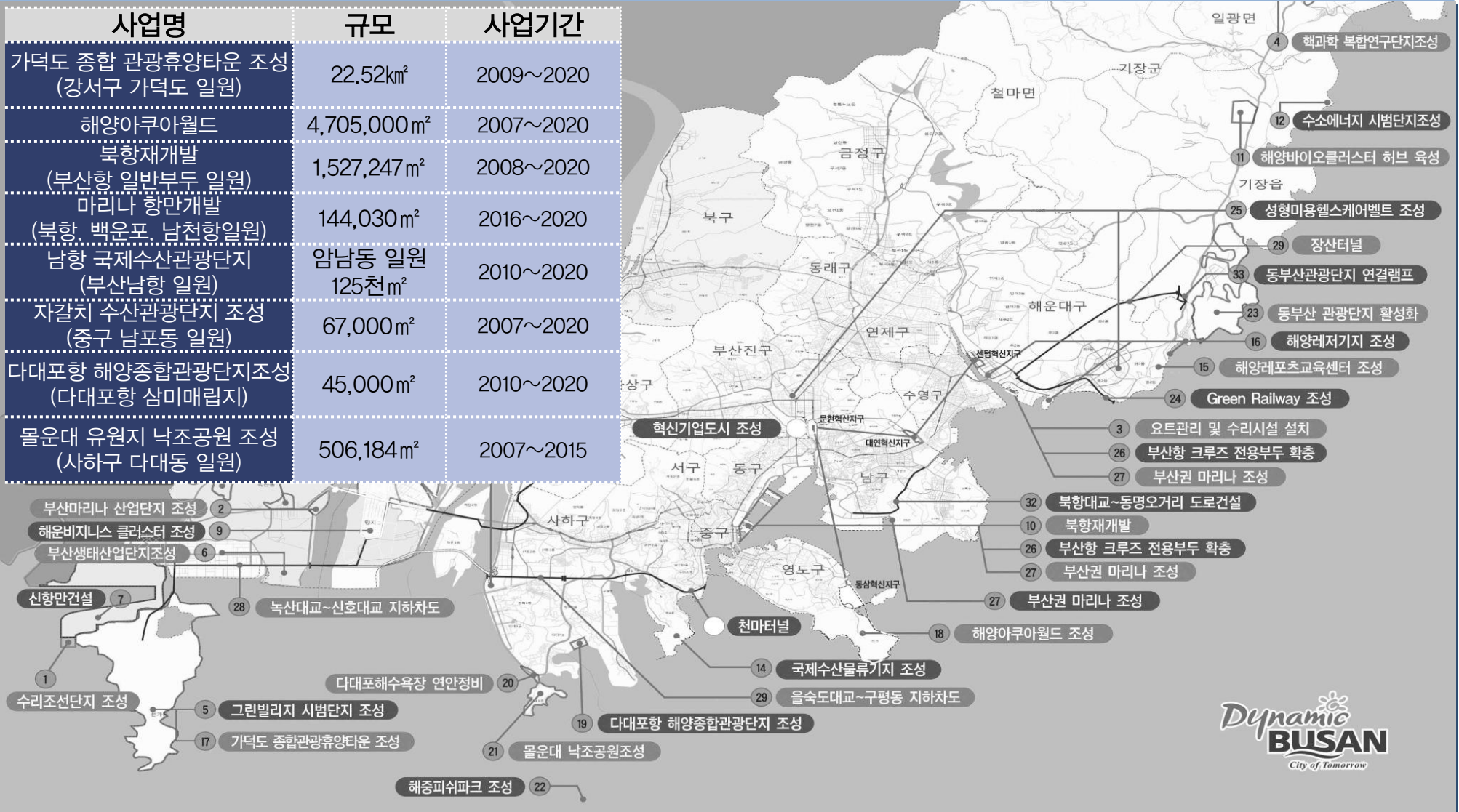
- 사업위치 : 부산시 강서구 천가동 ~ 경남 거제시 장목면
- 사업규모 : L=8.2km, B=20.5m~26.5m(왕복4~6차로)
- 사업기간 : 2004년 ~ 2010년
- 총사업비 : 2조 2,345억원 (민자 1조 5,255억원, 재정 7,090억원)
- 도로기능 : 자동차전용도로 (V=80km/h)
- 설계내용 : 하중1등교(DB-24), 풍속 78m/sec, 내진1등급 (리히터규모 8)

구 분	내용
교량형태	사장교 1.6km 침매터널 3.7km
통행료	10,000원(소형기준)
통행량 (2010년)	30,336(대/일)

사장교



3. 주변개발계획



전망카페

한강대교 노들&리오

- 노들리오 전망카페는 한강르네상스 ‘한강교량 보행환경 개선사업’ 으로 추진
- 한강대교 북단에 위치하여 도보 접근이 편리한 전망쉼터 조성

구분	내용
사업위치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동 일원
사업규모	• 연면적 432㎡(3층), 40여명 수용
개장일	• 2010년 11월 05일
영업시간	• 10:00 ~ 24:00
방문객수	• 주중 : 500명, 주말 : 1,500명
특징	• 등대모양의 별관, 별모양의 실내조명 • 고수부지 공원내 주차장을 통해 엘리베이터 진입 • 생일, 이벤트, 프로포즈 등 이벤트 명소로 자리매김



전망대 및 전시예술관

광진교 리버뷰 8번가

- 광진교 리버뷰 8번가는 전세계적으로 3개밖에 존재하지 않는 교각하부 전망대
- 공연과 전시를 소재로 다양한 문화와 예술체험 공간임

구분	내용
사업위치	•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호동 527-2번지
사업규모	• 연면적 1,094m ²
개장일	• 2010년 08월 05일
영업시간	• 10:00 ~ 22:00
도입시설	• 전망대, 쉼터, 공연장, 갤러리 등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세계적으로 3개 밖에 없는 교각하부 전망대 • 원형모양의 전망대로 360° 한강조망 가능 • 공연, 전시 등 다양한 문화컨텐츠 도입으로 시민문화 공간으로 활용



번지점프대

철원 태봉대교

- 국내 최초 교량에 설치된 상설 번지점프대임
- 태봉대교 번지점프대에서는 한탄강 계곡의 직탕폭포 및 철원평야의 조망이 가능



구분	내용
사업위치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 상사리
사업비	2억 7천 400만원(군비)
개장일	2002.10.15
영업시간	09:00 ~ 22:00 (예약자에 한해 야간 운영)
도입시설	번지점프대, 엘리베이터, 사무실, 장비보관창고, 정비실, 주차장 등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태봉대교 재원(L:240m, B:14.5m) 이용요금 : 개인(30,000원), 단체(25,000원) 위탁관리 선정계획 수립을 통한 민간 위탁운영



교량전망대

Penobscot Narrows Bridge Observatory

- 세계에서 가장 긴 큰 교량관측소이며 개장 이래 방문자가 130,000명에 달함
- 워싱턴 기념물의 형태로 2개의 탑의 디자인으로 가까운 Mt. Waldo에서 화강암으로 부분적으로 건축

구분	내용
사업위치	• 미국 메인주 월드카운티
사업규모	• L=636m, 주탑높이 136m
개장일	• 2007년 05월 19일
영업시간	• 1~6 & 11~12월 09:00 ~ 17:00, 7월~10월 09:00 ~ 18:00
도입시설	• 교량관측소, 전망대 등
특징	• Penobscot Narrows Bridge Observatory는 주탑에 전망대를 설치한 교량으로 태국, 슬로바키아에 이어 전세계적으로 3번째 교량임



교량미술관

Leisure and Exhibition Bridge Museum & L'accademia Bridge Museu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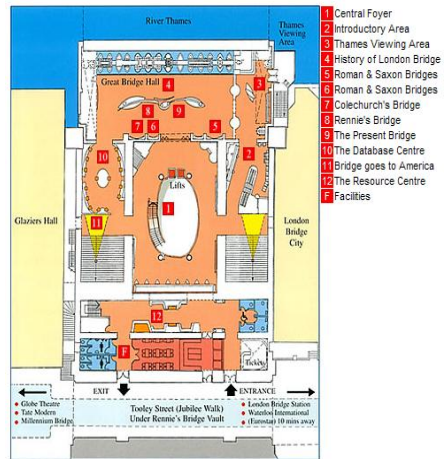
- Leisure & Exhibition Bridge Museum: 전시 컨벤션 행사장 기능의 교량박물관 설치 운영중 (Tianjin, China)
- L'ACCADEMIA BRIDGE MUSEUM (Italy, Venice) : 교량위에 현대미술 전용 전시관 설치 계획중



교량박물관

London Bridge Museum & 서울 한강교량 박물관

- London Bridge Museum & Educational Trust : 런던 브릿지의 건설과정 및 그와 관련된 역사 교육을 목적으로 계획됨. 교량 하부 공간을 활용하여 건축될 예정으로 현재 사업 추진중임
- 서울 한강교량박물관 : 2012. 7월 시장지시사항으로 한강 교량과 관련된 각종 역사 및 기술 교육 목적으로 계획중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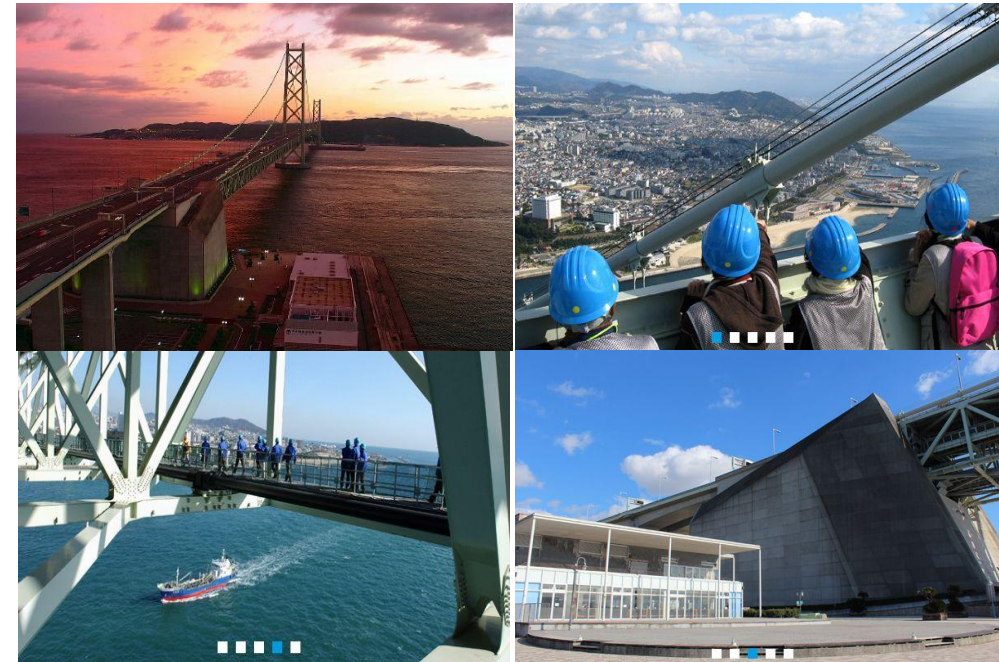


과학관 및 보행패스

아카시 해상프롬나드&브릿지월드

- 아카시대교는 세계에서 가장 긴 현수교로 연장 4km 임
- 다리 아래 전망이 가능한 통로가 이루어져 있으며 주탑 정상에서 아카시 해협, 오사카 만을 관람할 수 있음

구분	내용
사업위치	• 일본 효고현 고베시 다루미구 및 아와지시
사업규모	• L=3,911m, 주탑높이 298.3m
개장일	• 1998년 04월 05일
영업시간	• 평일 09:30 ~ 18:00, 휴일 09:30 ~ 19:00
도입시설	• 과학관, 전망라운지, 전망광장 등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진규모 8.5 초속80m 강풍에 견딜수 있도록 설계 • 교각하부에 위치한 전망코스로 해상 60m~70m 위를 통과 • 안전장비 착용후 전망라운지, 전망광장 구간 통과 (바닥면 일부 유리) • 교량과학관: 교량설치 과정 및 교량의 특징을 소개



번지점프대 및 브릿지 클라이밍

Auckland Harbour Bridge

- 번지점프 전문가 A. J. Hackett에 의해 설치된 최초의 교량 번지점프대임
- 브릿지 클라이밍& 번지점프를 통합한 관광상품(Climb & Bungy)을 도입
 - ※ 교량 번지점프 이용자에 한해 교량을 도보로 통행하도록 함



구분	내용
사업위치	• Western Reserve, St. Herne Bay, Auckland, Newzealand
사업규모	• L=1,020m, H=43.3m
개장일	• 2003년 1월
영업시간	• 09:00 ~ nightfall
도입시설	• 보행패스, 번지점프대, 교량카페, 주차장 등
특징	• 브릿지 클라이밍과 번지점프를 연계한 관광상품(Climb & Bungy) 운영 • 교량인근에 교량조망용 카페테리아 운영 • 이용요금 : 성인150\$(NZD, 한화 약 14만원), 청소년120\$, 가족320\$(성인 2명, 청소년 2명) ※ 교량 보행전용도로(SkyPath) 설치 계획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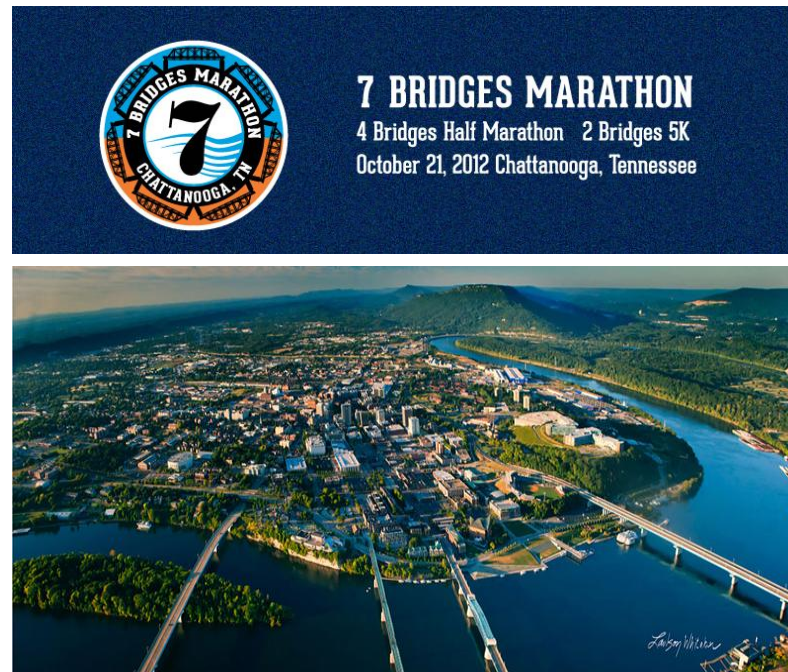
2. 관광콘텐츠 도입

교량 마라톤

7 Bridges Marathon

- 7 Bridges Marathon : Chattanooga시에서 매년 10월 개최되는 대회로 테네시강에 건설된 7개 교량과 주변관광요소 (Tennessee Aquarium, Creative Discovery Museum, AT&T Field)를 연계한 코스가 특징임

구분	내용
행사위치	• 미국 Tennessee州 Chattanooga city
행사규모	• 연평균 참가자 1,500명
행사일	• 1981년 10월 ~ (10월 중 1일 선택)
행사시간	• 오전 7:00 ~ 15:00 (8시간)
특징	• 참가비 : 성인 95\$ • 7개 교량과 주변관광요소 연계한 코스 개발 (Tennessee Aquarium, Creative Discovery Museum, AT&T Field 등) • 풀코스(7개 교량), 하프코스(4개 교량), 5km(2개 교량) ※ 완주자에게 코스별로 7/4/2 bridges medal 수여



Breakfast on the Bridge

호주 시드니 Harbour Bridge

- 자동차전용도로로 사용되는 해안교량에 잔디밭 설치 다양한 이벤트(소풍, 결혼식 등) 공간으로 활용하는 행사
※ 사전 추첨을 통해 선정된 신청자 대상으로 교량 무료 개방
- 호주 국내 및 해외 관광객 대상으로 가장 호응을 얻고 있는 이벤트로 발전됨

구분	내용
행사위치	• Australia Sydney Harbour Bridge
행사규모	• 추첨을 통해 선정된 신청자 6,000~7,000명 대상
행사일	• 2009년 10월 25일 ~ (10월 중 1일 선택)
행사시간	• 오전 6:00 ~ 12:00 (6시간)
방문객수	• 평균 6,000~7,000명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종 문화예술 공연과 함께 개최됨 • 전원의분위기를 강조하기 위해 잔디밭 및 목장등 설치 • 가족소풍 및 프로포즈 등 이벤트 명소로 자리매김



사례분석 결과

구분		주요특징
시설물 설치	국내사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해안교량에 시설물 설치 사례 없음. 서울 한강 교량 및 일부 지역에서 교량에 시설물 설치 사례 있음 • 기존 설치된 교량시설물은 교량에서 주변지역의 전경 및 야경을 감상할 수 있는 전망 카페가 주를 이루고 있음
	국외사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량 계획단계부터 다양한 관광시설물 설치 방안을 고려함 • 일본의 경우 교량과학관, 기념공원, 프롬나드(교량 위 공간 활용 전망대) 설치 사례가 다수인 것으로 확인됨 • 호주 및 뉴질랜드에서는 교량에 레포츠시설물 설치와 함께 다양한 관광상품을 개발하여 판매중임
관광 이벤트	국외사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의 교량 관련 관광 이벤트 단일 교량만을 위한 행사에서 벗어나 지역 전체의 관광자원과 교량을 연계하여 관광상품으로 활용되고 있음

시사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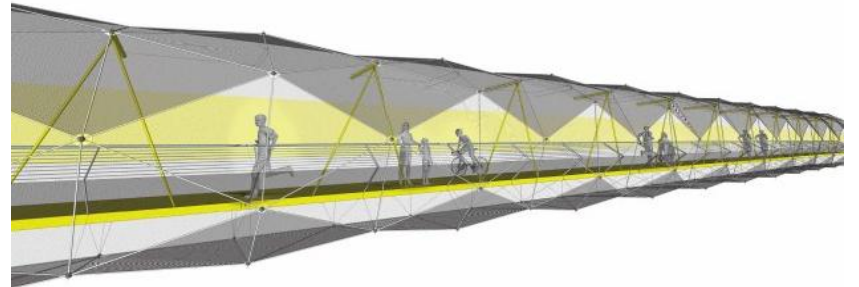
- 현재 국내에서는 교량 인근의 조망을 감상하는 전망대 시설이 주를 이루고 있음. 따라서, 국외 사례와 같이 레포츠 시설물 및 다양한 활용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교량을 활용한 관광이벤트는 단일 교량만을 활용한 것에서 벗어나 해당 지역의 다양한 관광컨텐츠와 연계한 상품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IV. 시민아이디어 및 설문조사 결과

1. 시민아이디어 공모 (2012. 4.7~4.27)

교량시설물 설치 활용

- **광안대교 및 북항대교** : 번지점프대, 캡슐 바이크 등의 동적인 레포츠 시설 도입
- **거가대교** : 해안경관 조망 및 가덕도 자연환경을 활용한 체류형 오토캠핑장 설치
- **교량전체** : 교량별 전망 카페 설치 ,차도 분리된 보행로 및 자전거 전용도로 설치
- 기타 의견 : 해안교량 특성을 살린 터널 분수 등의 설치, 교량박물관 설치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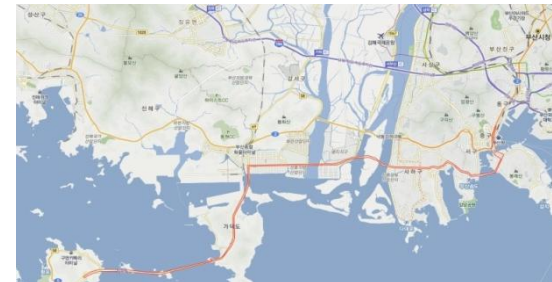
교량 활용 이벤트 개최

- 교량활용 스포츠 이벤트 개최
 - 교량 전체 구간을 활용한 일반 시민 참여 위주 이벤트
 - ※ 마라톤 & 사이클, 철인 3종 경기 등
 - 국제적 스포츠 행사에 부산해안교량을 활용
 - ※ Tour de Korea, 세계 국제 마라톤 대회 유치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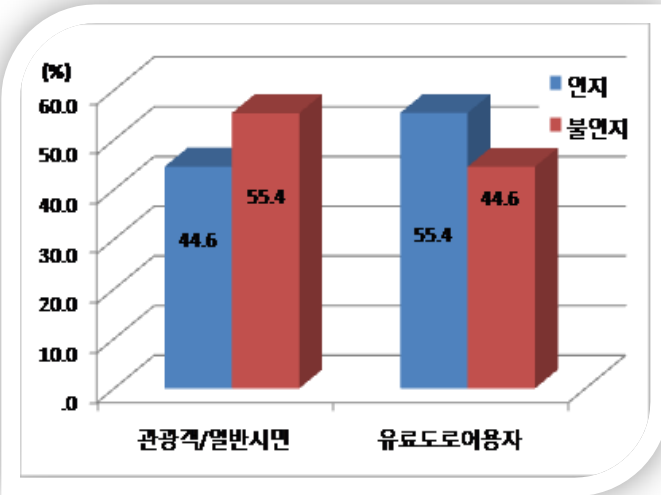
연계 교통체계 구축 및 해안교량 관광상품 개발

- 해안교량 순환 교통체계 도입
 - 시티투어 버스와 연계한 해안교량 순환버스 도입
 - 해안교량 순환 관광 유람선 운영
- 해안교량 자유이용권 : 일부 유료도로 연동통행료 도입을 통해 요금 인하 효과 기대
- 해안교량 기념품 : 지역 및 교량 특성 반영한 상품 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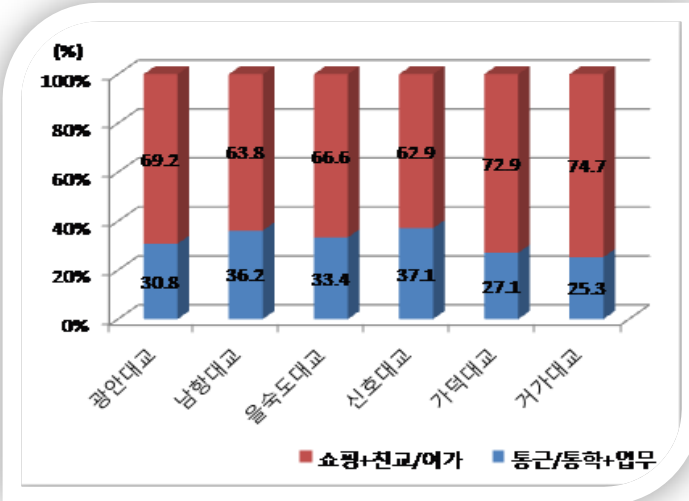


2. 설문분석 결과(관광객 및 유료도로 이용자 1,200명 대상)

- 해안교량에 관한 인지도
(교량자체, 통행료, 해안경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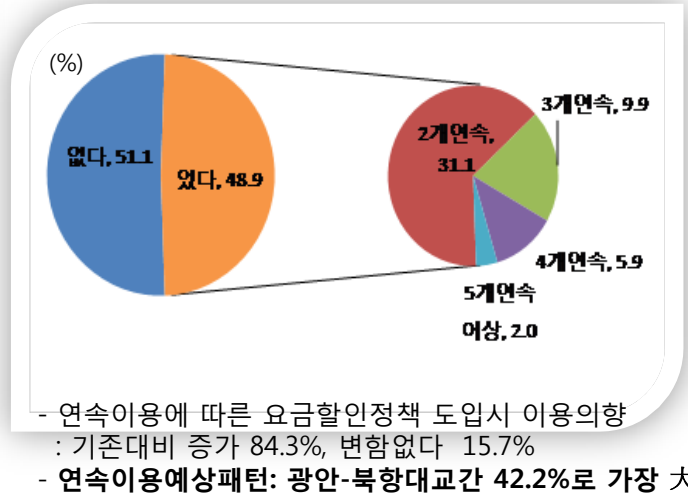


- 교량별 통행목적



해양교량 관광자원화 마스터플랜

- 향후 유료교량에 연속이용 여부
(2016년 해안순환도로내 8개중 5개가 유료교량임)



- 연속이용에 따른 요금할인정책 도입시 이용의향 : 기존대비 증가 84.3%, 변함없다 15.7%
- 연속이용예상패턴: 광안-북항대교간 42.2%로 가장 대

- 관광자원화 전략 우선순위



- 관광자원화 전략에 대한 교량별 평균적 우선순위: 광안대교 > 북항대교, 남항대교 > 을숙도대교 > 신호대교, 가덕대교, 거가대교

교량 통합 Naming

- BS Bridges Way
- BS Ways
- Busan Long Bridges
- BS 실크로드

지명(부산)
중점



- Busan blue bridges
- Busan Blue Waves
- 블루 오션 브릿지
- 부산 하버 브릿지
- 오션로드
- Coast connect Bridges
- 아시아퍼시픽로드

교량위치
(바다/해안)
중점



- Busan Seven Bridges
- Seven Star Loads
- Seven Sea Bridges
- Busan Rainbow Bridges

교량 수(7개)
중점



- Busan Love Bridges
- 다이나믹웨이브릿지

스토리,
활동성 중점



V. 교량별 관광자원화 구상

1. 해안교량 시설물 설치 방안

해양교량 관광자원화 마스터플랜

기본방향

- 부산시 7개 해안 교량별 특성을 반영한 특화된 시설 도입 유도
- 구조적 진단을 통한 안전성을 고려한 시설계획 수립
- 교량 주변의 관광자원과 연계한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관광자원으로 개발
- 해안경관과 조화된 부산의 랜드마크 역할 수행 도모



광안대교

개발컨셉

- 부산시 명물관광자원인 광안대교의 경관자원 및 지역이벤트, 문화자원과 연계한 체험관광자원으로 변모
- 광안리를 만나고, 즐기고, 사랑하는 「문화와 레저가 어우러진」 부산의 대표 Image Brand화 추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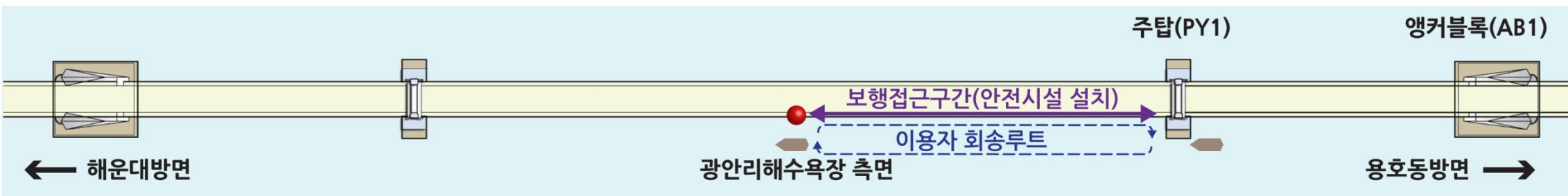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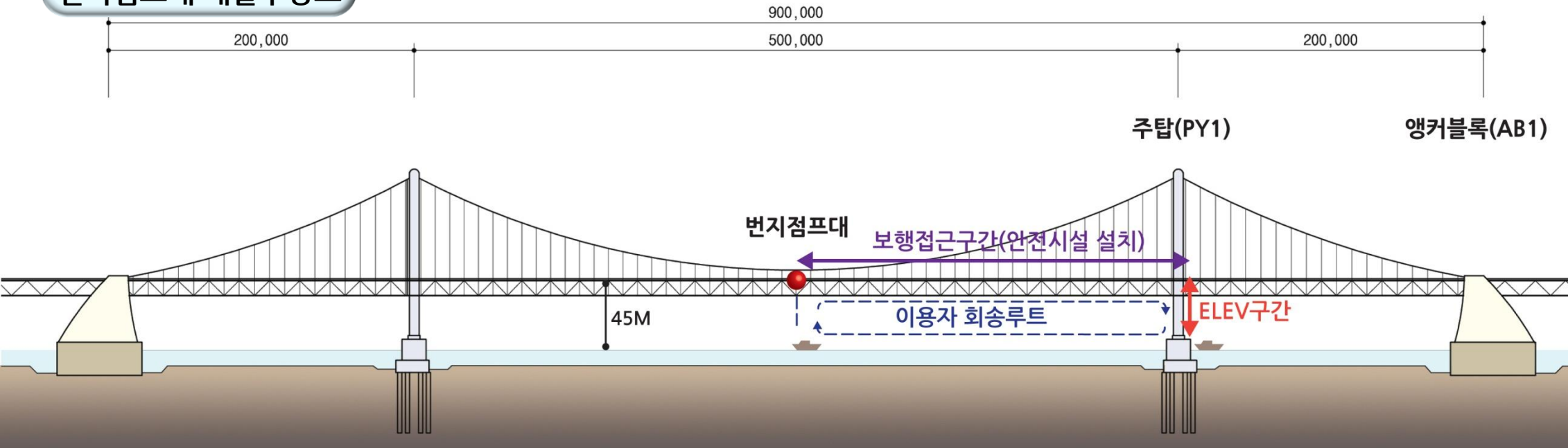


광안대교 개발구상

- 국내 최장 현수교이자 부산의 대표적 교량인 광안대교의 상징성 부각
 - 4계절 이용 가능한 동적 레포츠시설(번지점프대) 도입
- 접근동선체계 : 광안리해수욕장 인근 해양레포츠센터 및 민락항, 용호부두~주탑(PY1) 기반부 구간의 3개 접근로
- 광안리 해수욕장에서 번지점프 관람을 관광 콘텐츠로 활용



번지점프대 개발구상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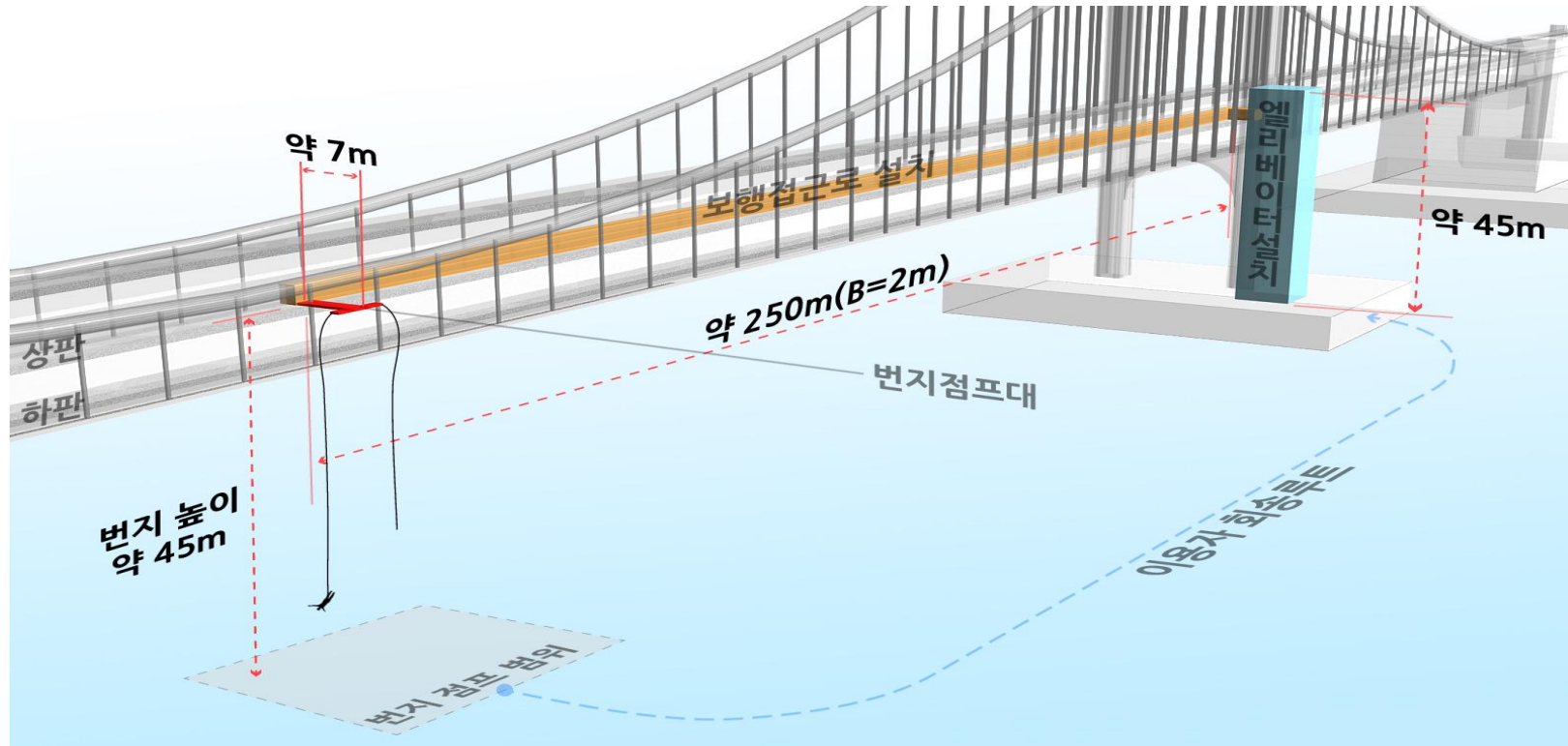


번지점프대 개발구상도



번지점프대 개발구상도

- 광안대교 중심부 높이 약 45m 구간에 번지 점프대 설치(점프대 약 7m)
- 이용객은 교각하부 설치한 수직 E/V를 통해 접근
- 보행접근로는 상부교량 250m 구간에 보행튜브를 설치하여 이용객 안전성 및 접근성 향상 도모
- 사업추진시 풍향 및 구조 안전성 여부를 검토하여 설치토록 계획



부산항대교

개발컨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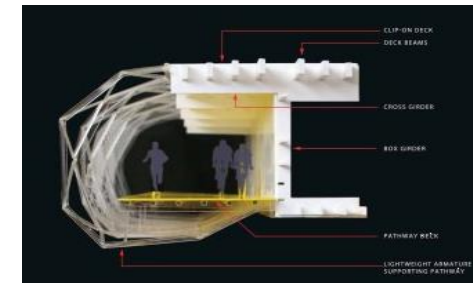
- 부산항의 중심이라는 역사적, 위치적 이점을 활용하여 교량박물관 설치를 통한 관광자원화
- 보행통로(Sky path way) 설치를 통해 부산 중심의 친수공간(Central Bay) 조망 및 보행 가능토록 계획



교량박물관 개발구상

● 교량박물관

- 7개 교량 중심 및 기존교량(부산대교, 영도대교)의 교차하는 지역적 특성 고려
- 검토 대상지 : 교각하부공간 및 청학 수변공원, SK에너지 물류센터 일원
- 다양한 교량 구조 형식과 7개 교량 미니어처 및 부산항 역사, 교량건설과정 등 다양한 볼거리 및 체험 위주 공간으로 조성



부산항대교 교량박물관 입지후보지 검토

구 분	내 용
대안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 SK에너지 부산물류센터 • 규모 : 5,943㎡
대안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 북항대교 교각하부공간 • 규모 : 5,455㎡
대안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 청학수변공원 매립지 • 규모 : 4,842㎡



교량박물관 입지후보지 대안 비교

- 부산항대교 인근 지역의 입지여건을 고려한 교량박물관 최적입지 도출
 - 검토 대상지 : 교각하부공간 및 청학 수변공원, SK에너지 물류센터 일원
- 입지여건, 부지취득의 용이성, 공시지가, 접근성 등을 반영한 최적 입지 : 대안 2

구분	대안1	대안2	대안3
구간	330-5 일대 (현 SK에너지 부산물류센터 부지)	330-88 일대 (북항대교 교각 YP5~YP7구간)	신규매립 (217-43 청학수변공원 일원)
부지면적(m ²)	5,943m ² (부지매입비 약72억)	5,455m ² (부지매입비 약52억)	4,842m ²
장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접근성이 탁월하며 진출입이 비교적 자유로움 • 정방형 부지로 공간활용성 용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각 하부를 활용한 최단거리 접근 가능 • 사유지로서 부지확보가 용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학수변공원과 연계를 통한 관광자원으로 활용가능
단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유지로 토지수용시 마찰 가능성 내재 • 타 부지에 비해 토지매입비가 높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량 하부 기둥에 의한 시설배치의 제한적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지매립에 따른 사업비증대 및 환경훼손우려 (공유수면 사용료 부가) • 타 후보지에 비해 이격되어 있어 운영관리 측면 및 접근성이 불리
최적(안)		○	

남항대교

개발컨셉

- 암남공원~태종대에 이르는 기존 산책코스를 활용한 **산~바다~길**이 어우러진 명품산책코스 창출
- 야간조명 및 교량곡선분수 및 전망데크를 활용한 볼거리 제공 및 지역문화공연 개최를 통한 Night-Life 창출



남항대교 개발구상

- 남항대교 좌우측에 위치한 방파제를 활용한 전망데크 및 산책로의 연결통로로서 기능부여
- 조망대상
 - 자연경관 : 천마산~수정산~봉래산
 - 인공경관 : 자갈치시장~영도다리
- 주변의 송도해수욕장~암남공원을 잇는 송도해안 볼레길과 절영해안 산책로를 연결하는 해안 관광산책로 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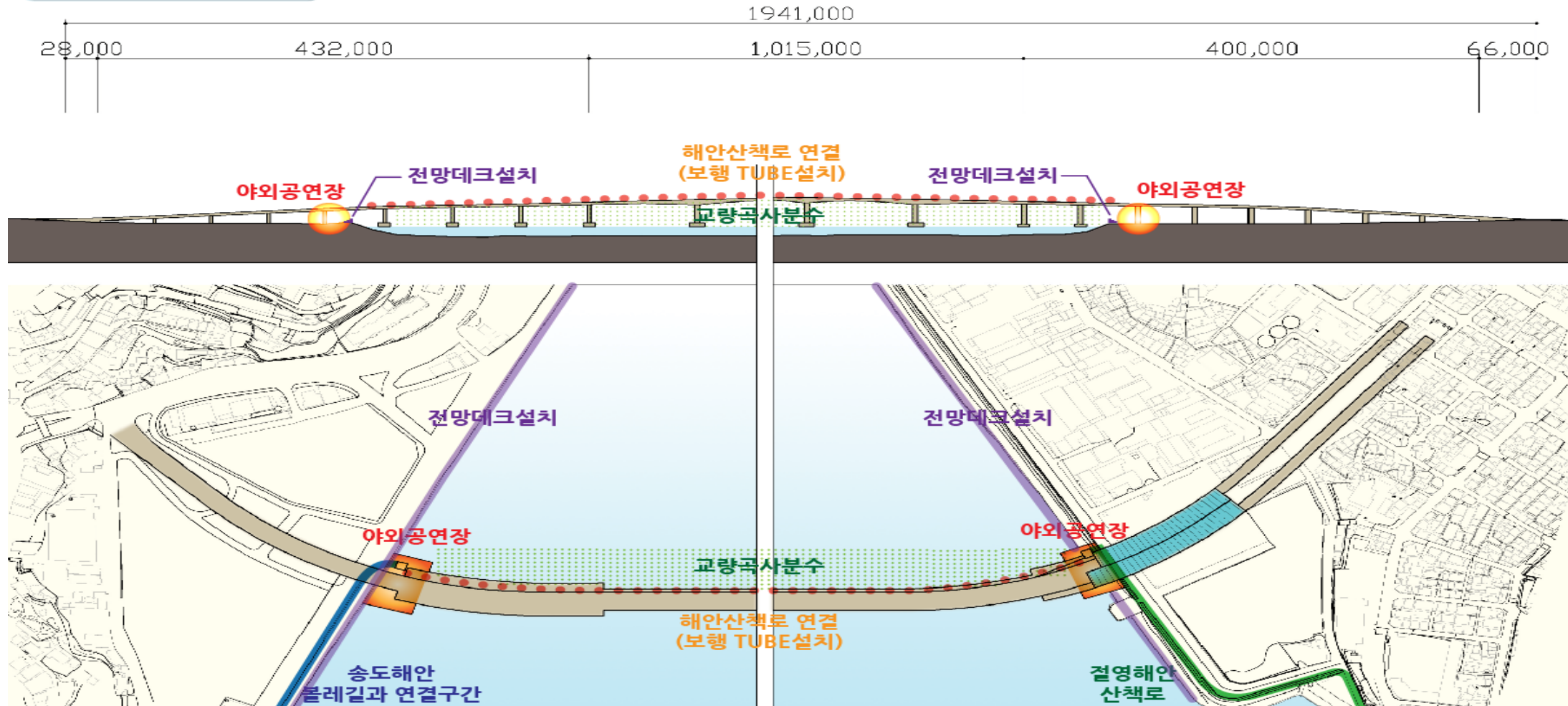


남항대교 개발구상

- 남항대교 1.2km 구간 교량곡사분수
노즐설치 및 LED 조명 3D연출
(상하연출+좌우연출, 360 방향 회전)을
활용한 경관연출
- 남항대교 진출입부 광장을 활용한
야외공연장 조성 및 소공연 유치를
통한 커뮤니티 형성 유도
- 남항대교 양측 방파제를 활용한
전망데크(폭원 2m 규모) 조성
(암남동 방면 약 930m 구간, 영도 방면 약
800m 구간)
- 기존 교각 보행로구간에 개폐식 보행
튜브 설치를 통한 계절 및 날씨 영향
없이 이용이 가능하도록 개발



남항대교 개발구상도



을숙도대교

개발컨셉

- 세계적 철새도래지인 을숙도의 철새를 탐조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
- 을숙도 생태공원, 국립 청소년생태체험수련원 등 주변 자원과 연계한 생태체험 코스 개발 유도



을숙도대교

개발구상

- 국내 최대 철새도래지인 을숙도 및 낙동강하구역에 설치된 은폐관찰소와 연계한 생태교량으로 활용
 - 접근동선은 을숙도 생태공원의 셔틀버스를 활용하여 접근 유도



거가대교

개발구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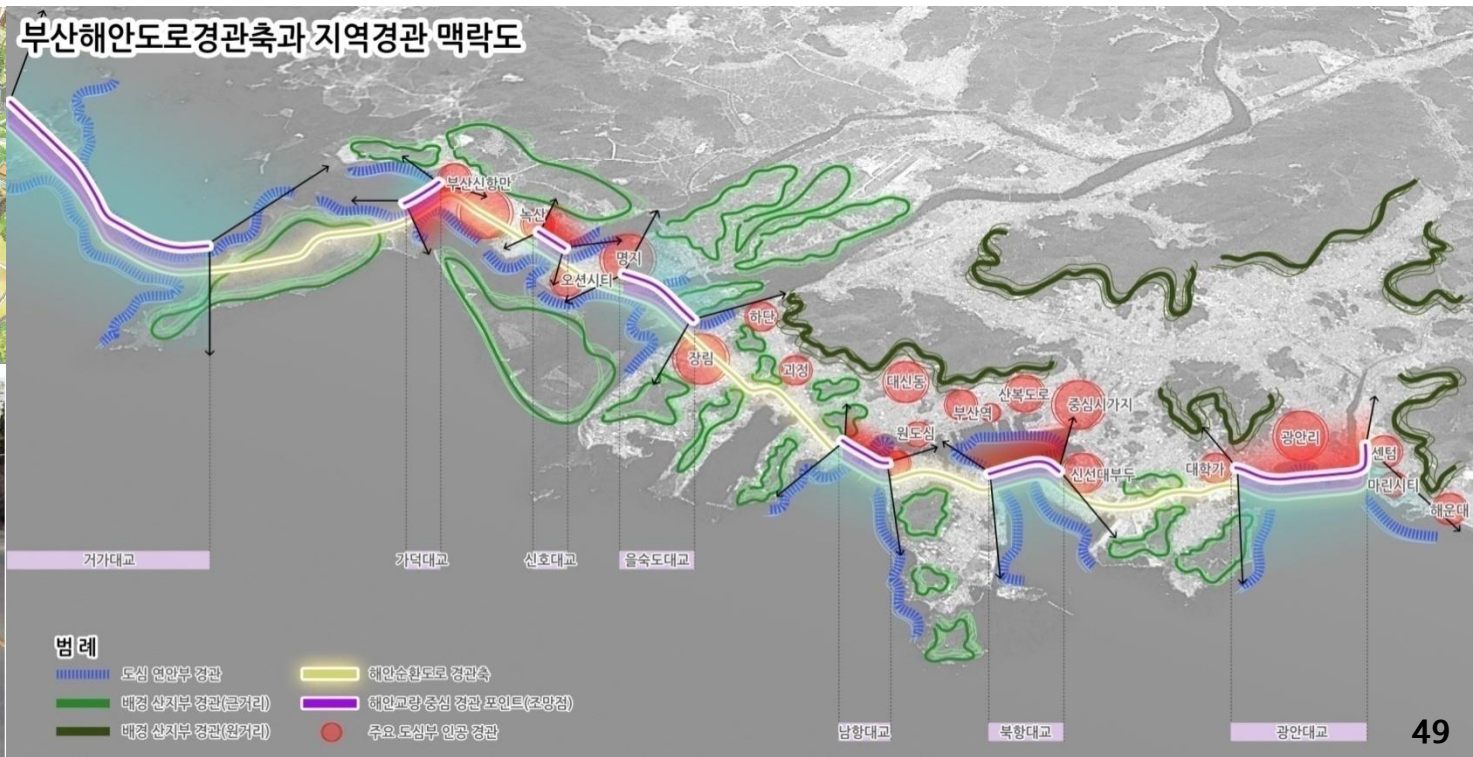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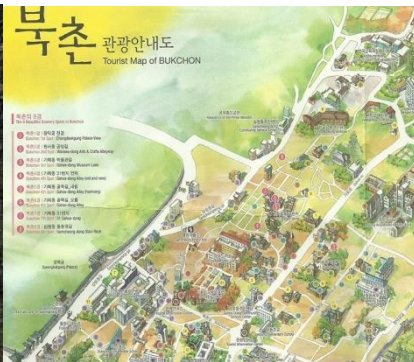
- 거가대교 홍보관 및 가덕휴게소 이용
관광객 편의를 위한 부산방면 연결로 설치
(기존 관리용 회차로 활용)
- ※ 현재 추진중인 거가대교 실시협약
재구조화 협상에 본 과업 내용 반영 필요
- 만성적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장
추가 확보
- 거가대교 해저터널 진입부 폭포분수대
및 분수터널 설치
(해저 침매터널 상징성 부각)



2. 교량 경관가치 극대화 및 뷰 포인트 설정

기본방향

- 교량을 테마로 한 최적 조망점 설정 및 관련 사업 추진
 - 교량과 주변 경관을 함께 조망할 수 있는 장소(Photo Spot, 전망대 등) 개발
 - ※ 해안경관축, 교량별 및 지역경관 자원을 복합적으로 고려한 최적 조망점 선정
 - 교량 조망점 지도 제작 및 보급을 통한 관광객 홍보



광안대교

- 이용자의 접근성 및 원/근경을 고려한 최적 조망점 설정
 - 황령산 청소년수련원 인근, 해운대 장산, 이기대 자연공원

View 1 : 황령산에서 바라본 광안대교



View 2 : 장산에서 바라본 광안대교



View 3 : 이기대에서 바라본 광안대교



부산항 / 남항대교

- 이용자의 접근성 및 기존시설을 활용성을 고려한 최적 조망점 설정
 - 민주공원 / 북항재개발 사업지구 / 봉래산 정상

View 1 : 민주공원에서 바라본 부산항대교



View 2 : 북항에서 바라본 부산항대교



View 3 : 봉래산에서 바라본 남항대교



을숙도대교 / 신호대교

- 기존시설 활용성 및 자연생태환경 조망을 고려한 최적 조망점 설정
- 오션시티 외곽 보행로 / 을숙도 생태공원 내
- 신호대교 경관조명 추가 설치 및 최적 조망점 안내시설 설치

View 1 : 을숙도에서 바라본 거가대교



View 2 : 오션시티에서 바라본 을숙도대교



View 3 : 오션시티에서 바라본 거가대교



가덕대교 / 거가대교

- 도로이용의 안전성 및 부산신항 조망을 고려한 최적 조망점 설정
- 가덕휴게소 / 연대봉 정상 / 대항 인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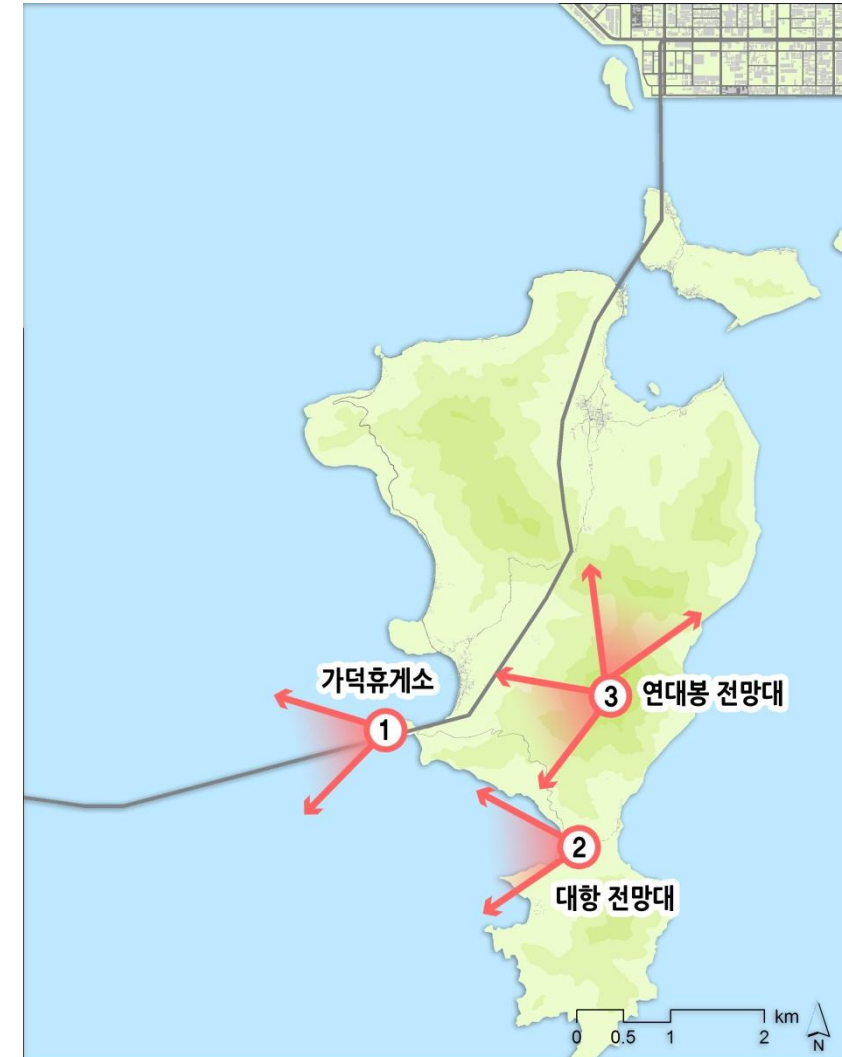
View 1 : 가덕휴게소에서 바라본 거가대교



View 2 : 대항전망대에서 바라본 거가대교



View 3 : 연대봉에서 바라본 부산신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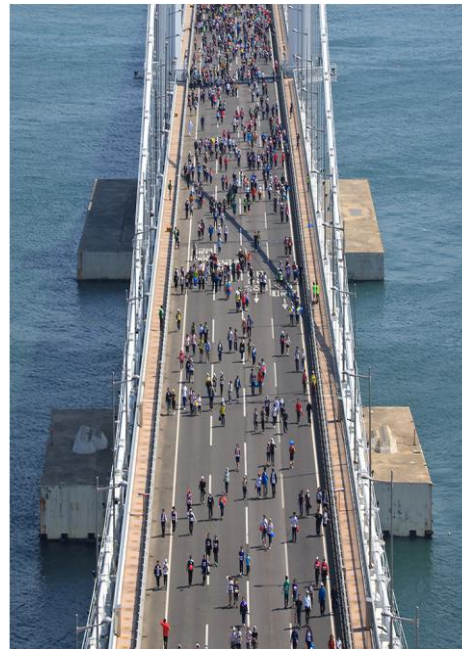


3. 교량 연계 관광상품 개발 및 브랜드 가치 증대

해양교량 관광자원화 마스터플랜

기본방향

- 부산 해안교량 7개 전체를 연계한 관광 상품 도입
- 교량 자체 및 교량 인근의 지리적 특성을 활용한 스토리텔링 관광상품 발굴·개발 유도
- 교량별 브랜드 가치 극대화 방안 및 교량별 특성을 활용한 이벤트 도입



해안교량 CityTour Bus 구상

- 교량 개통시기 및 관광객 이용 특성 고려 4개 노선 대안(자연생태/해양생태/연안관광/광역) 구상
- ※ 관광수요 및 제반 여건 고려 중/장기 대안으로 구분하여 추진, 운영

시티버스운행구상도(종합)



7개 교량 연계 관광상품 도입

- 주변 관광자원과 연계한 해안순환도로 관광순환버스(부산시티투어버스) 추가 코스 도입
 - 코스 : 해운대 ~광안대교~북항대교~남항대교~을숙도대교~가덕대교~거가대교~해운대 잇는 해안관광코스 개발
- 7개 해상교량의 야경 관람용 관광 유람선 운영
- 해상교량과 지역 문화 단체를 활용한 지역 문화투어 상품 개발(남항대교 : 교량하부(E/V) 공간 문화공연장으로 활용)



교량별 특성 활용한 이벤트 도입

- 시민수요 및 교량별 특성을 활용한 이벤트 개최
- 기존 부산의 축제와 교량을 연계한 행사 주최
 - 불꽃축제, 부산바다축제, 부산국제영화제 등

구 분	개최이벤트
광안대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번지점프 대회, 마라톤 대회, 철인 3종 경기 등 • 불꽃축제(유료화 검토), 부산국제영화제 연계
부산항대교 ~ 남항대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icnic on the bridge, 시민걷기대회 등 – 송도해안볼레길과 연계한 산책코스 • 부산바다축제
을숙도대교 ~ 신호대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철새 탐조 행사 개최 • River Walk 생태탐방 걷기 대회 등



해안교량 스토리텔링 활용 및 브랜드 가치 증대 방안

해안교량 스토리텔링 활용

- 해안교량과 관련한 스토리텔링 마케팅 요소 개발
 - 마케팅 요소 : 교량디자인, 건설과정 뒷얘기, 역사 등의 소재 활용
- ※ 국내 최초 도개교인 '영도대교' 및 해안순환도로 연계한 스토리텔링
 - 콘텐츠 확보 방안 : 스토리텔링 공모전, 부산교량 소재 다큐멘터리 등
 - 활용방안 : 스토리텔링 북, 브릿지 앱(App)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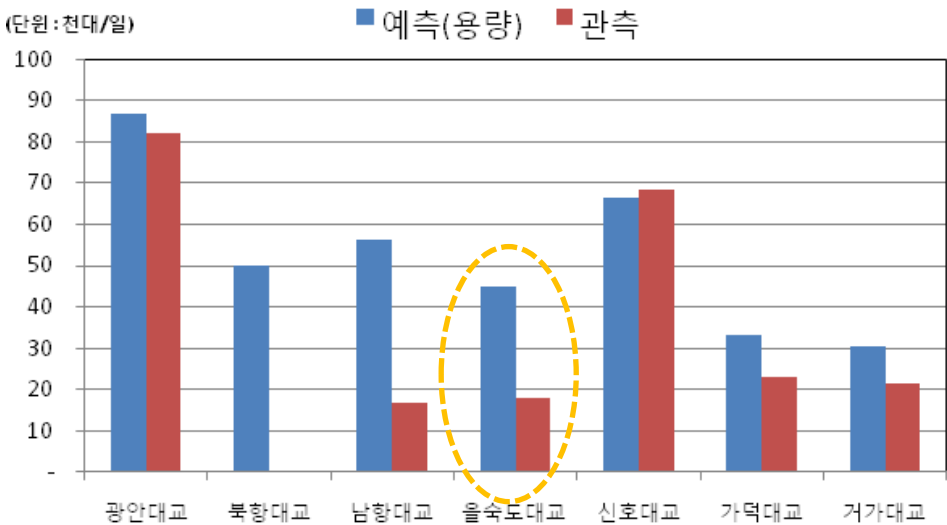
교량별 브랜드 가치 증대 방안

- 해안순환도로의 가치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7개 해안교량
통합 브랜드 네이밍 공모
- 각 교량별 애칭 선정
 - 시민들이 쉽게 인지할 수 있는 상징성 부여
 - 선정방법 : 시민공모, 전문기관 용역, 의견조사 등



유료도로 이용

- 부산 해안순환도로 : 유료통행료 시설 5개소로 통행료 부담으로 인한 이용효율 저하 우려
 - 유료통행 이용자에 대한 통행패턴 분석
 - 연속통행을 활성화하는 교통수요를 증대하는 방안을 강구 필요
- 2021년의 연속통행을 예측 (국가교통DB 자료 활용)
 - 2연속 통행 : 20% 이상 - 광안대교↔북항대교, 천마산터널↔을숙도대교
 - 3연속 통행 : 광안대교~북항대교~천마산터널 4.5%
 - 4연속 / 5연속 통행 : 0.1~1.5%, / 0.5~1.3%



구분	광안대교	부산항대교	천마산터널	을숙도대교	거가대교
광안대교 →	<div></div>	27.0%	4.5%	0.7%	0.5%
← 부산항대교 →	26.3%	<div></div>	11.6%	1.1%	0.6%
← 천마산터널 →	7.9%	18.7%	<div></div>	21.6%	1.3%
← 을숙도대교 →	0.1%	0.4%	25.1%	<div></div>	3.0%
거가대교 →	1.3%	1.5%	2.4%	3.9%	<div></div>

VI. 유료도로 효율적 운영방안 검토

유료도로 효율적 운영방안

해양교량 관광자원화 마스터플랜

- 을숙도대교는 예측 대비 교통량 40% 수준, 2연속 통행율 3.0~3.9% ⇒ 장래 부산시의 MRG부담 가중
 - 교통수요 증대 : 가덕도 개발로 서부산지역에 교통유발 환경을 조성할 전제로 유료도로 할인제도 도입
- Bundle Pricing : 광안대교~부산항대교~천마산터널~을숙도대교에 대한 연속 통과 시 3번째 통행료를 50% 할인
- 연속통과 이용 3번째 통행료 할인(Bundle Pricing)
 - 2021년 기준의 통행예측 결과, 3개 유료시설의 연속통행시 3번째 통행료를 50%할인해 주는 경우
 - 4개 유료통행시설에서 3,315대/일(1.3%) 통행 증가
 - 통행료수입 증대 : 1,349백만원/년-광안(263백만원), 부산항(519백만원), 천마산(493백만원), 을숙도(75백만원)

구분		유료통행료 교통시설						통행증감 (대/일)	
		광안	부산항	천마산	을숙도	거가	계	전체	3번째
3연속 통행 할인시 교통량 (대/일)	광안대교→	60,468	16,545	3,352	459	298	81,122	1,026 (1.3)	613 (22.4)
	←부산항대교→	16,272	62,357	6,967	793	348	86,737	1,004 (1.2)	112 (16.4)
	←천마산터널→	3,005	7,064	34,988	7,537	458	53,052	1,098 (2.1)	266 (9.7)
	←을숙도대교→	64	206	7,507	29,905	908	38,590	187 (0.5)	82 (65.6)
	거가대교→	298	355	556	889	23,040	25,139	-	-
	계	80,108	86,527	53,371	39,583	25,052	284,641	3,315 (1.3)	1,073 (17.1)

Ⅶ. 교량별 사업추진체계 및 향후 추진과제

교량 시설물 설치

교량별	대상사업	사업규모	사업비(억원)	추진주체	완공연도
광안대교	• 번지점프대 설치	• L=250m, B=2m (E/V 45m 포함)	100억원	• 임대형 민간투자(BTL)사업 ※ 부산광역시 / 부산관광공사	중기 (2014~2016년)
부산항대교	• 교량박물관 추진	• 연면적 4,842~5,943㎡	260억원 (개략)	• 임대형 민간투자(BTL)사업 ※ 부산광역시 / 영도구청	장기 (2020년 이후)
남항대교	• 남항대교 경관개선사업 (교량분수대, 경관조명 설치등)	• L = 1,900m		• 건설방재관실/광안대교사업단	중기 (2017년~)
을숙도대교	• 교량 연계 생태탐조코스 개발, 운영	• L = 4,000m	20억원	• 낙동강사업본부/ 낙동강 에코센터	단기 (2014년~)
거가대교	• 휴게소 관광시설 도입 등	•		• GK해상도로 주식회사	중기 (2017년 이후)
	• 오토캠핑장 설치	• 연면적 9,000㎡ 규모	100억원	• 수익형 민간투자(BTO)사업 ※ GK해상도로주식회사 / 강서구청	장기 (2020년 이후)

경관가치 극대화 및 뷰포인트 설정

교량별	대상사업	사업규모	사업비(억원)	추진주체	완공년도
교량 연계	• 교량별 최적 뷰포인트 설정 및 주변정비	• 교량별 3개소	각 1억원	• 교량 인근 자치구	단기 (2014년~ 2015년)
	• 교량 연계 갈매길 개발	미정	-	• 행정자치국	단/중기 (2014년~2020년)

교량연계 관광상품 개발

교량별	대상사업	추진주체	비고
광안대교	• 번지점프대회, 철인3종경기(광안리~해운대 등) 등	• 문화체육관광국/부산관광공사	단기 (2014년~)
부산항대교	• ‘Picnic on the Bridge’ 행사 개최 (년1회)	• 북항-Bridge/부산관광공사 등	중기 (2017년~)
을숙도대교	• 철새 탐조 행사 개최 (년1회)	• (주)을숙도대교/낙동강 에코센터	중기 (2017년~)
신호대교	• River Walk 생태탐방 걷기 대회 등	• 강서구청 / 시민단체 등	중기 (2017년~2020년)
교량 연계	• 교량 연계 시티투어버스 도입	• 문화체육관광국/부산관광공사	단기 (2014년~ 2016년)
	• 교량 연계 요금체계 도입 / 교량 PASS 상품 개발	• 각 교량 사업자	중기 (2017년~2020년)
	• 교량 통합 브랜드명 선정/교량 관련 상품 개발	• 건설방재관실/부산관광공사	단기 (201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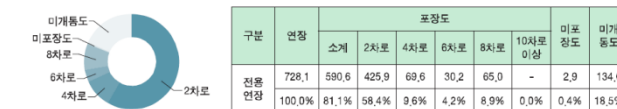
교량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0년 이후	비고
교량 통합 브랜드 선정										시민공모 제안
교량별 최적뷰포인트 설정										
교량별 이벤트 개최										년중 1~2회 개최
교량 연계 길썰미길 개발										
교량연계 시티투어 버스 도입										
교량 연계 요금체계 도입 등										
광안대교 번지점프대 설치										민간제안사업 추진
거가대교 휴게소 관광시설 설치										
남항대교 경관개선 사업										
교량박물관 설치										민간제안사업 추진
오토캠핑장 설치										민간제안사업 추진

향후 추진과제

- 교량별 사업추진방안 검토 : 해안교량 통합브랜드에 따른 개별 교량별 네이밍(Naming) 공모
- 통합 및 개별 교량 브랜드 홍보전략 수립 : 해안교량 홍보용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 교량 홍보단 활용방안 등

국도 77호선을 위한 시사점

- 7개 시·도의 해안선을 연결하는 도로
 - 경기, 인천, 충남, 전북, 전남, 경남, 부산
- 기능 및 역할, 명분은?
 - 관광과 국토의 균형발전에 기여하는 명품해안도로
 - 속도(speed)에서 쉼(Rest)과 재미(Fun)난 도로
 - 소통과 통일(Unification)을 준비하는 도로
- 국토 77호선의 완성을 위한 검토사항
 - 연구 : 시·도간 공동연구 추진
 - 행정 : 시·도간 추진협의체 구성
 - 공통/관심 이슈 발굴(해안도로에 대한 프로젝트 부재)
- Big 프로젝트로 발전
 - 국도 77호선(서해, 남해) + 국도 7호선(동해)
 - Korea Coastal Road : 소통과 통일의 도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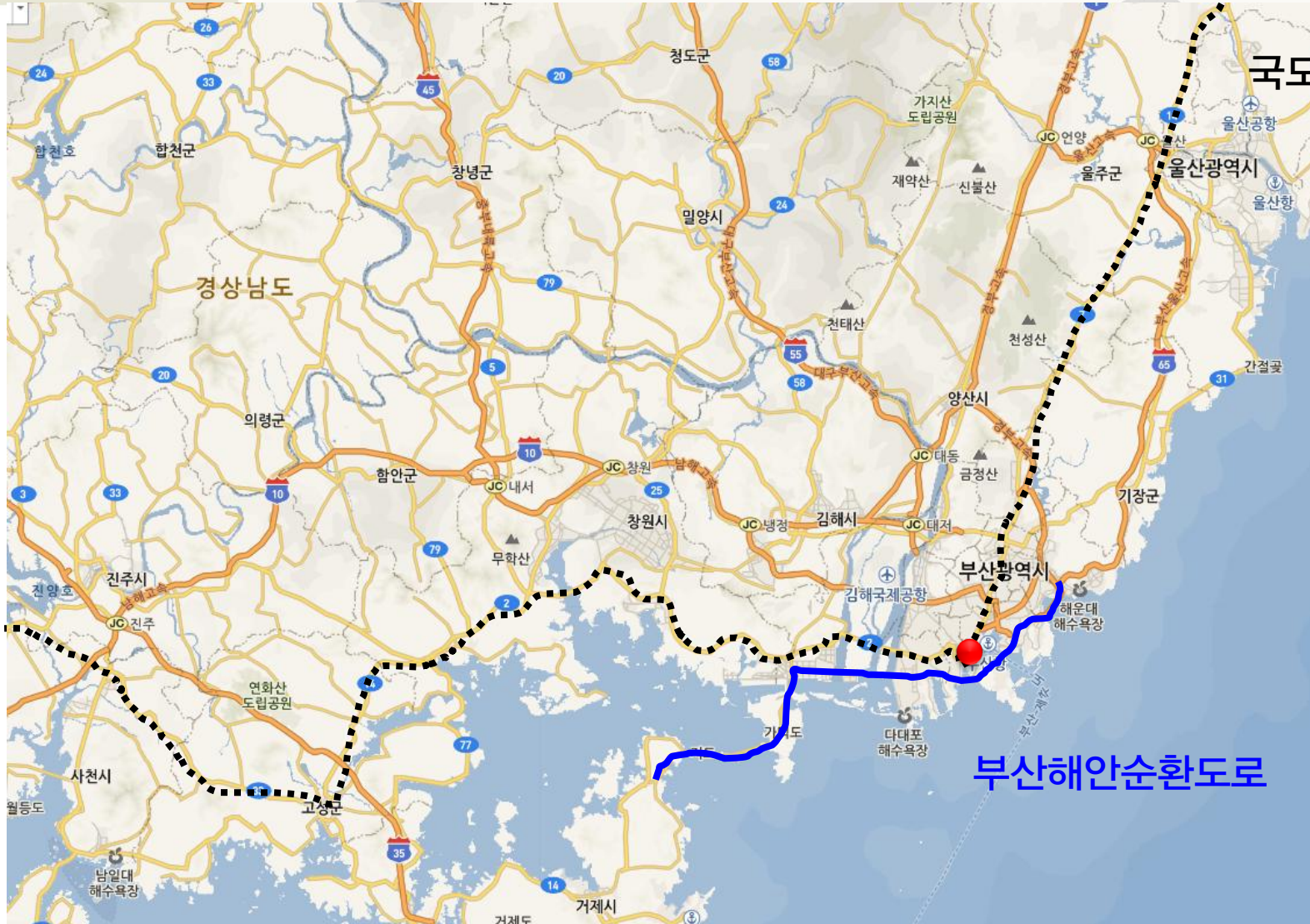
감사합니다.

부산 : 국도 77 + 국도7의 접점

해양교량 관광자원화 마스터플랜

국도 77호선

국도 7호선



부산해안순환도로

토론

토론

사회(좌장)

김원철 책임연구원, 충남연구원

토론자

류시균 선임연구위원, 경기연구원

송기욱 연구위원, 경남발전연구원

한종학 연구위원, 인천발전연구원

김상엽 부연구위원, 전북발전연구원

나강열 책임연구원, 전남발전연구원

최재왕 지속발전담당관, 충청남도

「국도77호선 조기건설 논리개발을 위한 시·도 협력 세미나(15.5.20)」 토론문 (경기연구원 류시균 선임연구위원)

1. 국도77호선의 조기건설 논리개발을 위해 국도77호선의 지정 경위(또는 사유)를 연구해 볼 필요가 있음

- 경기도의 한강 이북 구간(고양시, 파주시)은 과거 국지도에서 국도로 승격되었는데, 대한민국에서 교통량이 가장 많은 도로라는 상징성이 국도 승격의 사유가 되었다고 판단됨
- 한편, 한강 이남 구간(시흥시, 화성시)은 시흥~평택간 고속도로 건설을 위한 명분(유로도로법 상 무료의 국도가 있어야 유로도로 건설 가능) 때문에 아니었을까 하는 추론과 missing link의 연결 차원에서 추진된 것이 아닌가 하는 추정을 함
- 어떤 사유로 국도로 승격되었든 국도 자체의 조기건설은 추진되지 않을 것임
- 국도 승격 이력을 검토하면 중용구간이 없는 국도77호선의 참된 모승를 확인할 수 있으며 조기건설의 전략이 구간별로 다를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임

2. 노선조정의 필요성

- 노선조정은 승격과 달리 지정 국도보다는 다른 지방도, 국지도, 시도, 군도의 조기 정비가 필요할 경우 구사하는 전략임. 또는, 미연결 구간을 도로로 지정하는 것임

- 중앙정부를 설득할 수 있는 논리로는 첫째, 도로 네트워크의 기하학적 형태 측면에서의 논리, 둘째, 교통량의 상대적 우위, 셋째, 장래 교통수요의 급증 등이 될 수 있음
- 충남의 경우, 지방도 603호선 617호선을 첫 번째 논리를 이유로 노선조정을 요청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실질적으로는 지방도의 국도 승격임)
- 미연결 구간에 대한 합리적인 노선대안을 기술진(엔지니어링)과 함께 발굴해서 중앙 정부에 제안하는 것도 좋은 방안임

「국도77호선 조기건설 논리개발을 위한 시·도 협력 세미나(「15.5.20)」 토론문 (경남발전연구원 송기욱 연구위원)

- 현재 경남의 국도77호선 관련 현안사업은 크게 3가지임
- 첫 번째, 남해(경남)~여수(전남)을 연결하는 한려대교 사업
- 두 번째, 경남 고성~통영을 연결하는 삼산교 사업
- 마지막, 경남 고성~통영의 기존 왕복2차로 구간을 4차로 신설 확장하는 사업임. 본 사업은 제2차 국도건설 5개년 계획에 반영되어 기본 및 실시설계가 완료되어 추진중에 있음(아직 착공은 하지 않았음)
- 두 번째 사업은 3.2km(교량 1.3km, 도로 1.9km) 비교적 짧은 노서이고, 아직 상위계획(국가계획)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음. 첫 번째 한려대교 사업이 3가지 사업 중 가장 현안이라고 할 수 있음. 경남과 전남을 연결하는 소위 동서통합 지대 대표사업으로 두 지자체가 협력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함. 다만, 15.4km (접속도로 11.0km, 교량 4.4km)의 비교적 긴 노선이고, 경제성에서 미흡하여 상징성에 비해 추진 속도는 더딤
- 이처럼 인접한 양 지자체가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들은 우선으로 해서 전체 국도77호선 노선 정비로 확대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겠다고 생각함
- 전체 1,200km에 달하는 국도77호선에 대한 공동대응이 득이 될지 실이 될지에 대한 냉철한 판단도 필요함
- 대부분 단절구간이 교량 중심인 것으로 보이는데, 지역별 테마가 있는 교량 설치로 교량 자체를 관광상품화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지자체간 고민도 국도77호선 조기건설 논리개발의 하나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국도77호선 조기건설 논리개발을 위한 시·도 협력 세미나(「15.5.20)」 토론문 (인천발전연구원 한중학 연구위원)

- 국도77호선 관광가도 개념의 사업추진시 사업컨셉을 “선형의 관광도로”로 추진 필요. 다만, 시도간 협약을 위해 선형의 missing 도로 구간이 시도간 이슈가 되는지에 대해 공감대가 필요
- 국도77호선 조기건설을 위해 노선 변경시 시도간 연결구간에서 노선변경이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 검토 필요
- 기존 도 단위내 국도는 유지관리를 국가에서 관리하지만, 광역시도 내 국도는 광역시장이 유지관리를 책임지지 않음
- 인천지역의 관점에서 국도77호선 노선변경에 다른 사업 조기 추진의 관점에서 협력이 가능한 경우는,
 - 기존 국도77호선은 시내구간 관역시도 구간으로 지정되어 있음
 - 최근 인천시의 경우 “국도 77호선-인천대교-영종-강화-해주(북한)”을 연결하는 사업을 구상하는데 이 사업구간을 신규 국도77호선으로 지정 변경 승인을(도로법 시행규칙 제5조) 통해 협력이 간으할 것으로 보임
- 다만, “관광가도” 또는 “선형의 관광벨트”, 도는 “Smart 관광도로” 등이 설득력이 있을지는 좀더 고민이 필요함 → 통일 개념 필요
- 국도77호선 변경시 인천광역시와 인접한 경기도의 기존 국도77호선 국도구간의 조정에 대해 경기도와 협의 논의가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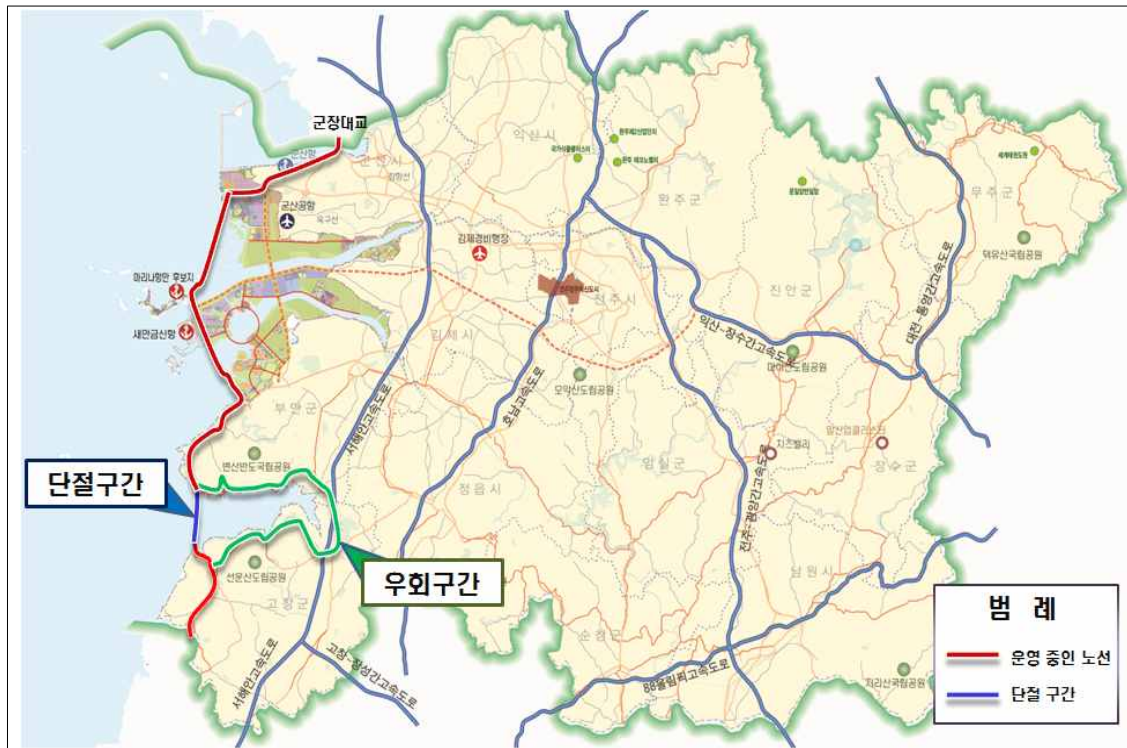
「국도77호선 조기건설 논리개발을 위한 시·도 협력 세미나(15.5.20)」 토론문 (전북발전연구원 김상엽 부연구위원)

- 국가의 SOC 투자 절감에 따라 신규사업 추진이 어려운 상황에서 77호선 추진 명분을 얻기 어려움
- 다만, 관광이라는 유발수요를 발생시키는 지역개발 전략이 함께 해야함. 단계적으로 경관도로, 주변 관광지개발 등에 따라 수요를 늘리고 그 이후 관광수요도 따라 도소신설 및 확장사업 시행 필요
- 광역 관광계획에 SOC 사업의 꾸준한 탑재 필요

- 전라북도 77호선 관련 사항은 다음과 같음

1. 현황

- 국도 77호선(부산~파주선)은 인천~부산을 잇는 총 연장 691km의 해안도로로 국토 균형발전과 해안관광지를 연계해주고 있음
- 전라북도 내의 77호선은 44km가 있으며, 군장대교~새만금구간 국도(21호선)와 새만금~고창군 왕촌리구간 국도(30호선, 23호선, 22호선)를 공유하여 총 연장 127km로 이루어져 있음
- 향후 새만금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중요도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나, 전라북도내에 단절구간이 많아 우회구간이 존재함
- 특히 새만금~부안군 도청리~고창군 왕촌리를 잇는 노선에서는 지형적 특성 때문에 약 70km(통행시간 : 1시간)의 우회구간이 발생함



[그림 1] 전라북도 국도 77호선 노선 위치도

2. 관련 계획(부창대교)

○ 기존안 건설 내용

- 위치 : 부안군 변산면 도청리 ~고창군 해리면 왕촌리
- 사업비 : 7879억원(공사비 7,773, 보상비 106)
- 사업내용 : L=15.04km, B=20.0m(4차로) 부창대교 7.48km
- 추진내용 : 새만금 종합개발계획 광역도로망계획 반영 :

11. 3

제3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안 타당성 재조사 : 11. 10

(경제성 부족(B/C 0.27)으로 제3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 미반영)

제4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 대상사업 선정 : 15. 1

○ 부안군 건의 내용

- 부안군 내소사와 고창군 선운사를 연결하는 최단노선(L=5.86km)으로 연결하여 부창대교를 건설
- 향후 23호선, 30호선 국도를 확포장하여 줄포 IC와 연계함



[그림 3] 부창대교 건설 건의(안) 위치도

3. 검토 결과

○ 검토의견

- 국도 77호선을 연계하는 부창대교 건설의 주요 목적은 지형특성으로 인하여 단절된 우회구간을 연계하는 것이 주요 목적임
- 부안군이 건의한 건설 계획은 기존 건설 계획 대비 약 14km의 우회 구간(기존노선대비 약 2배)이 발생하게 되어 주요 목적에 부합하지 않음
- 따라서, 부창대교 건설은 기존안이 적합한 것으로 판단됨

○ 개선방향

- 기존 통과방식(새만금→격포→곰소→줄포IC)에서 부창대교 건설로 인한 통과 방식(새만금→고창→전남)형태로 변환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소외되는 지역(진서, 보안, 중포, 변산)의 개선 사업이 필요함
- 관광객 수요를 유치하기 위해서 국도 30호선과 23호선을 개량하여 통행편의를 증진해야함
- 또한 곰소 갯갈단지, 변산 자연휴양림, 부안자연생태 공원 등의 관광자원을 연계하는 해안 관광·체험 도로망 구축 및 관광자원 개발이 필요함

「국도77호선 조기건설 논리개발을 위한 시·도 협력 세미나(15.5.20)」 토론문 (전남발전연구원 나강열 책임연구원)

1. 국도77호선의 기능 및 역할

○ 동서지역의 가교 역할

- 부산을 비롯한 경남과 호남 남해안의 해안선을 따라 한반도의 동서지역을 연계

○ 해안 경관도로의 기능을 통해 남해안의 절경을 감상할 수 있는 역할

- 전남의 경우, 신암군 섬, 고흥군과 여수시를 연륙·연도교로 연계하는 등 독자적인 관광자원으로 역할 가능
- 해안 경관도로 정비를 통해 관광인프라 자원 기능

○ 전남 도서지역 열악한 연계 네트워크를 보완할 수 있는 인프라 확충

- 해안과 도서지역 주민의 가장 큰 고충인 교통인프라 확충에 도움을 주는 역할 수행
- 도서지역 주민의 삶의 질 개선 요소 (용수 및 전기의 인프라 개선은 지속적으로 사업 추진된 반면 교통에 대한 투자는 미진한 편)

○ 경제·물류 연계 가능

- 국토 동서간 물류이동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역할로 고속도로와 각 지역을 연결하는 지선 역할(신체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대동맥 뿐만 아니라 모세혈과 기능이 중요)

○ L자형 국토축 조성

- 한반도 환순환형 교통축에서 서남해안 시군단위 지역을 연결하는 “L”형 지선교통축

2. 국도77호선 조기건설을 위한 연계협력 방안

- 도로의 연계성, 효율성 등을 기반으로 도로 개통 논리 발굴
 - 광역간 연계도로 조성에 따른 지역개발 효과 측정 등 (예, 서해안 고속도로 건설에 따른 주변지역 효과)
 - 공동의 동일목적 (관광, 이동편의, 물류이동)을 바탕으로 지역의 연계협력 체계 구축 (지역간 접점지역에서부터 조성공사 추진)

- 지역간 공동대응 협력체 구성
 - 인천-경기-충남-전북-전남-경남-부산 등 77호선 주변지역 공동 협력체 구성하여 기재부 예산 공동 대응, 조개기통을 위한 다자간 협력체계 구축, 도로 조성 후 관리비용에 대한 협력방안 모색 (행복생활권 지역간 연계사업 추진 등)

질의응답

감사합니다!